

#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연구

강주현 · 전해운

50-6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 가이드'가 포함된  
전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50+포털의 보고서 게시글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30014172>  
하단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연구주체가 되어 50+세대의 현장 중심의 구체적 이슈와 삶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성과를 엮은 것으로 참여한 연구진의 고민과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연구

---

강주현 전해운



# 목차

요약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1. 50+세대 여성에게 스타일링은 옷 입기 이상의 의미를 지님	1
1)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1
2) 긍정적 정서의 의미를 담은 패션 스타일링	2
2. 50+세대 여성은 평생 해오던 패션 스타일링에 어려움을 느낌	3
1) 사회적·신체적 변화로 인한 스타일링 변화의 필요	3
2) 50+세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3
제2절 연구목적	4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5
1. 연구내용	5
1) 50+세대 여성의 체형 특징과 패션 스타일링 원리	5
2) 50+세대 여성의 패션 선호유형과 스타일링 시 어려운 점	5
3) '따라 하기 쉬운' 스타일링 가이드 제작	5
2.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6
2) 설문조사	6
3) 심층면접	6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50+세대 여성 체형의 특성	7
제2절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10

1. 평면진단식 스타일링 가이드	10
1) 역삼각체형(INVERTED TRIANGLE)	11
2) 직사각체형(RECTANGLE)	13
3) 삼각체형(TRIANGLE)	15
4) 모래시계체형(HOURLASS)	17
5) 둥근체형(OVAL)	19
2. 입체진단식 스타일링 가이드	21
1) 스트레이트 타입	22
2) 웨이브 타입	23
3) 내추럴 타입	24
<b>제3절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b>	<b>26</b>
1.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 이미지	26
2. 50+세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29
3. 50+세대 여성의 패션 선호 아이템과 디자인	31
4. 과거와 달라진 현대 50+세대 여성 선호 스타일의 변화	33
<b>제3장 연구방법</b>	<b>35</b>
제1절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스타일 양적 연구	35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의 수집	35
2. 측정 도구(설문지)	36
제2절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 스타일 질적 연구(심층 면접)	39
<b>제4장 연구결과</b>	<b>41</b>
제1절 50+세대 여성에게 패션은 어떤 의미인가	41
제2절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 스타일	42
1. 추구 선호 이미지	42
2.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44
3. 선호 패션 스타일	46
1)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과 낮은 스타일	46
2) 선호도와 체형 타입	50
3) 50+세대 여성은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52
제3절 패션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이유	54
1. 50+세대 여성이 얘기하는 '스타일링이 어려운 점'	54
1) 본인에게 어울리는 좋은 코디법을 몰라서 어려움	54

2) 체형 변화가 커서 스타일링이 어려움	55
3) 사회적 변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스타일을 바꿔야 해서 어려움	55
4) 한정된 유형만 입어 와서 변화가 어려움	56
5) 안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게 되는 어려움	57
2.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숨은 이유'	58
1) '입고 싶은 스타일'과 '실제 주로 입는 스타일' 간의 불일치	58
2) '입고 싶은 스타일'과 '이상적인 나의 스타일' 간의 불일치	58
<b>제4절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b>	<b>60</b>
1. 체형별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60
2.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의 수집과 분류	60
1)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 선정과 검증	60
2)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 분류	63
3. 스타일링 가이드의 체형 코드 시스템	64
4.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의 구성	65
1) 목차와 활용법 안내	65
2)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 가이드를 찾아주는 스타일 퀴즈	66
3) 스타일링 가이드 세부 페이지	67
4) 스타일링 가이드 MAP	68
5)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구성의 타당성 검토	70
<b>제5장 결론 및 제언</b>	<b>71</b>
제1절 결론	71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활용	73
<b>부록</b>	<b>75</b>
<b>참고문헌</b>	<b>83</b>
<b>패션 스타일 가이드</b>	<b>87</b>

## 표 목차

[표 2-1] 사이크로리아의 여성 연령대별 체형 분포	8
[표 2-2] 체형 타입별 신체 특징	22
[표 2-3] 체형 타입별 어울리는 스타일의 차이	26
[표 2-4] 여성의 연령대별 추구 의복이미지	28
[표 2-5] 연령대별 스타일링 시의 고려사항	31
[표 3-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36
[표 3-2] 설문 문항의 구성	38
[표 4-1] 연령대별 추구 선호 이미지	43
[표 4-2]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45
[표 4-3]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 1~18위	47
[표 4-4] 선호도가 낮은 스타일 51~60위	49
[표 4-5] 체형 타입별 선호 스타일의 특징	51
[표 4-6]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 선정 시 적용한 연구결과	62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6
[그림 2-1] 한국 40대 여성 체형의 분포와 특징	8
[그림 2-2] 한국 50대 여성 체형의 분포와 특징	9
[그림 2-3] 한국 60대 여성 체형의 분포와 특징	9
[그림 2-4] 평면식 스타일링 진단	10
[그림 2-5] 역삼각체형의 스타일링 방법	12
[그림 2-6] 직사각체형의 스타일링 방법	14
[그림 2-7] 삼각체형의 스타일링 방법	16
[그림 2-8] 모래시계체형의 스타일링 방법	18
[그림 2-9] 둥근체형의 스타일링 방법	20
[그림 2-10] 입체진단식 체형 타입의 종류	21
[그림 2-11] 입체진단식 체형 타입별 스타일링 가이드 예시	25
[그림 4-1] 선호 패션 스타일 설문에 이용한 60개의 자극물	46
[그림 4-2] 선호 패션 스타일의 체형 타입별 구분	50
[그림 4-3] 선호도 구간별 스타일 특징	50
[그림 4-4] 높은 선호도를 얻은 스타일 유형	53
[그림 4-5]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숨은 요인	59
[그림 4-6] 스타일 이미지 분류(27개로 2차 분류)	63
[그림 4-7] 스타일 이미지 항목 재구성(16개로 단순화)	63
[그림 4-8] 스타일링 가이드 목차	65
[그림 4-9] 스타일링 가이드 활용법 안내	65
[그림 4-10] 스타일 퀴즈 1. 나의 체형 타입은?	66
[그림 4-11] 스타일 퀴즈 2. 나의 살찐 정도와 키는?	67
[그림 4-12] 스타일링 가이드 세부 페이지(예시)	68

[그림 4-13] 스타일링 원리 설명(예시)	68
[그림 4-14] 50+세대 여성을 위한 스타일링 가이드 MAP	69
[그림 4-15] 스타일링 가이드 세부 페이지 보는 법	70

# 요약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50+세대 여성에게 패션 스타일링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지님. 현대의 50+세대 여성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을 이전 세대보다 높게 가지고 있음. 또한 본인에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세대이며 과거 노인 세대보다 패션, 미용, 건강, 문화 등의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은 성향을 보임
- 50+세대 여성에게 패션 스타일링은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찾는’, ‘내면의’, ‘위로’, ‘기쁨’, ‘활력소’, ‘무기력과 우울감의 극복’, ‘일상의 행복’ 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
- 50+세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적·사회적 변화에 맞는 패션 스타일링 방법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함. 어려움의 요인은 ‘체형이 변했는데 체형 커버 방법을 모르겠다’, ‘좋은 코디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 ‘나에게 맞는 스타일링 방법을 모르겠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50+세대 여성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패션 스타일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스타일링 가이드를 개발하였음

## □ 연구방법

- 문헌조사: 50+세대 여성의 체형 특징, 기존의 스타일링 가이드,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에 대해 조사함
- 설문조사: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 스타일을 알기 위해 50+세대 여성 42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를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 지 진행함. 설문대상자의 범위는 서울시 50+를 이용하거나 문화센터, 평생학습 교육관 등을 이용하며, 패션 스타일링이나 패션 스타일링 개선에 관심이 있는 여성으로 함
- 심층면접: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 스타일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상자 중 임의로 5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병행함

## □ 이론적 배경

-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 50+세대 여성의 체형 특징은 하체가 빈약한 역삼각체형, 허리선이 구분되지 않는 사각체형, 배와 엉덩이 등의 하체가 큰 삼각체형의 분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 기존의 스타일링 방식 중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면진단식 스타일링 방식을 살펴보았음. 정면에서 바라본 여성의 체형을 도형 형태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스타일링 방식을 제안하는 방식임
- 두 번째 스타일링 방식으로 한국스타일컨설턴트협회<sup>1)</sup>에서 소개하는 입체진단식 스타일링을 살펴보았음. 일반적인 도형구분식 스타일링과 달리 여성의 체형을 입체적 관점에서 진단하며, 시각과 촉각 진단을 병행하여 다차원적으로 진단하여 진행하는 스타일링 방식임
- 50+세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체형 커버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패션 스타일과 함께 젊게 보이는 패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60대 이상의 여성은 옷으로부터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연구결과

- 50+세대 여성에게 ‘패션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50+세대 여성들은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정체성 변화에 적응’하고, ‘나를

1) 한국스타일컨설턴트협회. <https://kstyleconsultant.modoo.at/?link=e0n465ji>

- 위해 투자하며, ‘자신감을 되찾고’, ‘품위를 표현하고’, ‘아름답게 늙어 간다’고 하였음
- 50+세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패션 이미지 중 선호도가 높은 것은 ‘세련된 > 단정한 > 우아한 > 편안한’ 순이었음
  - 50+세대 여성들에게 60개의 스타일 이미지를 보여주고, ‘본인의 체형에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는 선호 스타일’을 다중 선택하게 한 결과는 일반 50+세대 여성들이 주로 입는 패션 스타일과 매우 달랐음
    - 50+세대 여성은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도 보기에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고르고, 평소 50+세대 여성들이 입는 스타일과 다른 ‘유행이 반영된’ 젊은 스타일을 골랐으며, 루즈하거나 오버핏의 세미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했음
    - 또한 50+세대 여성은 대부분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성향이다’라고 응답하고 9%만이 ‘가급적 유행하는 스타일의 패션상품을 선택한다’고 답했으나, 실제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최근 유행이 많이 반영된 스타일을 57%의 여성이 선택했음
  - 50+세대 여성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스타일링이 어려운 이유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좋은 코디법을 모르는 점’, ‘체형의 변화가 큰 점’, ‘사회적 변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스타일링을 바꿔야 하는 점’, ‘한정된 유형만 입어 와서 변화가 어려운 점’, ‘안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고 실패하는 점’이라고 답함
  - 연구를 통해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는 숨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50+세대 여성은 ‘입고 싶은 나의 스타일’, ‘내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 ‘내가 주로 입는 스타일’, ‘이상적인 나의 스타일’ 간의 불일치를 보였음.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숨은 원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50+세대 여성을 위한 스타일링 가이드를 개발하였음. 체형 결점 보완의 필요를 느끼는 50+세대 여성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체형 타입별 스타일링 가이드’로 구성하였음

- 스타일 퀴즈를 통해 본인의 체형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맞는 체형 제안 사례를 찾아가도록 하였으며, 체형 제안 사례로 사용한 스타일링 이미지는 ‘모두 50대 이상 여성이 착용한 체형별 이미지로 제안’하여, ‘따라 하기 쉬운 가이드’를 개발하고자 함
- ‘체형 코드 시스템’을 개발·적용하여, 보는 사람의 체형 코드에 맞는 자료를 찾기 쉽게 하였음. 체형 코드 시스템은 총 16가지 체형 코드로 구성되어, 이를 이용하면 ‘내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 가이드’ 또는 ‘나와 비슷한 체형의 스타일링 가이드’를 코드로 구분하고 쉽게 찾을 수 있음

## □ 연구의 의의와 활용

- 본 연구는 50+세대 여성들에게 패션 스타일링의 ‘의미’와 ‘필요’, ‘선호 스타일’,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을 ‘직접 묻고 분석하여’ 얻은 스타일링 가이드임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스타일링 가이드는 ‘50+세대 여성’에 맞춰 개발하였음. 제안된 스타일링 이미지 모두 50세 이상의 여성들이 착용한 사진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음
- 현재 트렌드가 반영된 이미지로 구성되었고, 전체 157페이지, 470여장의 스타일링 이미지가 16개 체형별로 찾아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음
-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의 변화를 원할 때, 체형별 스타일링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가이드로 제시할 수 있음
- 패션은 특성상, 유행과 시대성이 반영됨.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인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도 지속적으로 유행과 시대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다면 의미 있는 스타일링 가이드로 계속 활용될 수 있음
- 더 나아가, 50+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상품 쇼핑몰에서 ‘체형에 맞는 코디네이션 플랫폼’을 구성하여 상품 제안과 판매를 하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50+세대<sup>2)</sup> 여성에게 스타일링은 옷 입기 이상의 의미를 지님

#### 1)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50대가 16.6%를 차지하면서 4년 연속 연령대별 1위를 기록함. 50대 이상 인구 비중은 41.2%에 달함.<sup>3)</sup> 또한 2021년 한국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sup>4)</sup>
- 현재 50+세대 여성은 이전 노인 세대와는 달리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음. 더욱 젊은 감각과 개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며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관심사와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생활방식에도 차이가 있음<sup>5)</sup>
  - 현재의 50+세대 여성들은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본인에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세대임. 또한 과거 노인 세대보다 패션, 미용, 건강, 문화 등의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은 성향을 보임<sup>6)</sup>
  - 현재 50+세대 여성은 50대 이후에 겪게 되는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

2) 50+세대는 만 50~64세로서 베이비부머, 신노년 등으로 일컬어지는 중장년층이다.(서울시는 기존 정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례상으로 50+세대를 만50~64세로 정리했다.)

3) <늘어가는 대한민국, 10년 뒤 인구 절반이 '50대 이상'>. 서울경제, 2012.07.06.

4) 2021년 12월 한국 통계청 KOSIS 발표 자료

5) 정성호. (2006). 중년의 사회학. 파주: 살림, pp. 66-89.

6) 이세미. (2021). 뉴 실버 세대의 패션 색채 선호도 연구, P. 76.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 등 가정에서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급격한 신체적 변화도 함께 경험하고 있음. 신체적·사회적 변화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위기의식을 긍정적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을 이전 세대보다 높게 가지고 있음<sup>7)</sup>

- 50+세대 여성은 길어진 50대 이후의 시기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패션 스타일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50+세대 패션 강좌에서 체감하는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50+세대의 관심과 적극성은 높음.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본인의 스타일링을 개선하거나 바꾸기 위해 노력함

## 2) 긍정적 정서의 의미를 담은 패션 스타일링

- 50+세대 여성들에게 패션 스타일링 강좌에 나온 이유를 듣다 보면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찾는’, ‘내면의’, ‘위로’, ‘기쁨’, ‘활력소’, ‘무기력과 우울의 극복’, ‘일상의 행복’ 등과 같은 정서적인 의미와 관련된 답변을 얻을 수 있음
- 패션 강좌에서 만난 50+세대 당사자들의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생생한 생각은 연구당사자에게 50+세대에게 패션 스타일링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새로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이유가 50+세대의 필요를 더 묻고, 50+세대의 선호유형이 반영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음

*“나에게 패션 스타일링은 지금껏 살아온 삶과 내 나이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은 우리 나이에 맞는 품격의 표현입니다.”*

*“패션은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놀이터예요. 색깔과 액세서리로 나의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커버하려고 해요.”*

*“나는 병원에 가는 날은 일부러 더 환하고 밝게 옷을 입어요. 그러면 병*

7) 정수인, 김영인. (2014). 한국 중년 여성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따른 디자인 요소와 특성, p. 92.

원을 다녀오는 길에도 내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밝아져요.”

“퇴직 후의 나에게 패션 스타일링은 우울과 무기력의 일상에 생기를 주며,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활력소입니다.”

“욕심과 두려움, 의무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나에게 패션 스타일링은 자유와 여백이 있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내면의 스타일링과 같습니다.”

“60이 돼서 퇴직하고 보니, 옷장에 회사에 갈 때 입던 옷이랑 운동할 때 입던 옷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지인들도 만나고 취미활동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좋을지 정말 막막해서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 2. 50+세대 여성은 평생 해오던 패션 스타일링에 어려움을 느낌

### 1) 사회적·신체적 변화로 인한 스타일링 변화의 필요

- 50+세대 여성은 50대 이후에 겪게 되는 사회적·신체적 변화로 인해 의복 착용을 더욱 의식하고 있음.<sup>8)</sup>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맞는 패션 스타일링이 필요하다고 느낌
- 50+세대 여성은 체형 커버, 편안함의 순으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디자인에 가장 역점을 두는 특징이 있음.<sup>9)</sup> 이러한 이유로 그에 맞는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정보가 필요함

### 2) 50+세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 50+세대 여성이 패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스타일링 정보를 얻고자 하여도 대부분 20~30대를 위한 스타일 사례로 제한된 경우가 많아 원하는 패션 스타일링 정보를 얻기 어려움
- 현재까지 연구된 소수의 ‘중년 대상’ 패션 스타일 선행 논문도 대부분

8) 정수인, 김영인. (2014). 한국 중년 여성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따른 디자인 요소와 특성. 복식, 64(5). p. 92.

9) 장안화. (2005). 실버 패션 디자인 연구-노년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7(6). p. 581

35~45세, 또는 40~50대의 부분적 영역을 다루는 경우가 많음  
10)11)12)

## 제2절 연구목적

- 본 연구는 '50+세대 여성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패션 스타일링 정보 제공 및 가이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50+세대 여성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고 싶은 필요를 느낌. 그러므로 그에 맞는 50+세대 여성을 위한 '50+세대 여성의 체형별' 스타일링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함
  - 50+세대에게 필요한 내용의 스타일링 정보제공을 통해 50대 이후에 사회적·신체적 변화로 상실하기 쉬운 '본인을 사랑하고 가꾸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뷰티풀 에이징을 목표로 패션 스타일링 향상 활동을 통해 50+세대 여성의 일상을 긍정적이고 밝게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 본인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이 자아 탄력성과 자아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인 사회참여, 여가선용과 적극적인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새로운 직업이나 역할에 도전하는 50+세대 여성이 새로운 역할에 맞는 스타일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50+세대 여성이 패션 스타일링 과정에서 '따라 하기 쉬운' 스타일링 가이드를 개발하고자 함

- 
- 10) 정수인, 김영인. (2014). 한국 중년 여성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따른 디자인 요소와 특성. 복식, 64(5). p. 92.  
11) 김희연, 한고원, 홍윤정, 김영인. (2014). 시니어 여성의 패션선호색 및 자기 이미지에 따른 패션이미지 유형화. 한국복식학회지.  
12) 이정은. (2019). 중년 여성의 맞춤형 스타일링을 위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의 연구.

##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 1. 연구내용

#### 1) 50+세대 여성의 체형 특징과 패션 스타일링 원리

- 50+세대 여성은 체형 커버, 젊음, 무난, 유행의 순으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디자인에 가장 역점을 두는 특징이 있음.<sup>13)</sup> 그러므로 50+세대 여성의 체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문헌을 조사하여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관점으로 정리하였음
- 여성 패션 스타일링에 관한 기존 문헌을 조사하여, 각 정보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의 원리를 정리하였음. 기존 스타일링 문헌은 일반적으로 20~30대 위주의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스타일링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패션 스타일링의 원리는 여러 문헌을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2) 50+세대 여성의 패션 선호유형과 스타일링 시 어려운 점

- 50+세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패션 선호유형을 조사하고, 스타일링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중년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에 들어가야 할 관점과 항목을 도출하였음

#### 3) '따라 하기 쉬운' 스타일링 가이드 제작

- 50+세대 여성의 패션 선호유형과 체형 특징, 체형별 스타일링 원리를 적용하여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를 제작하였음

13) 장안화(2005). 실버 패션 디자인 연구-노년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7(6). p. 581.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 2.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50+세대 여성의 체형 특징과 패션 스타일링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각 정보물의 내용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50+세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에 필요한 콘텐츠 항목과 내용을 수집하였음

### 2) 설문조사

- 50+세대 여성의 패션 선호유형, 스타일링 시 어려워하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3) 심층면접

- 정량 조사를 보완하고, 응답에 답하는 사람의 견해, 의도를 충분히 알기 위해 특정한 몇 가지 질문에 관해서만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50+세대 여성 체형의 특성

- 사람마다 다양한 얼굴형을 가지고 있듯이 체형 또한 신체의 골격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근육조직과 체중은 체형의 구체적인 모양을 형성함. 여성의 체형은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몸의 형태나 자세를 분석하고 체형을 파악하면 신체와 밀접한 패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
- 여성의 체형을 분류한 선행 연구 및 단행본<sup>14)15)16)17)18)19)</sup>에서는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그 외형적인 형태를 크게 모래시계형, 직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둥근형의 4~5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기관인 사이즈코리아<sup>20)</sup>의 한국인 여성의 전체 체형 분류<sup>21)</sup>를 살펴보면, 20~60대까지 여성의 체형을 크게 역삼각체형, 삼각체형, 사각체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체형별로 작은, 보통, 큰 체형으로 세부 분류하였음[표 2-1]. 특히,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의 데이터를

14) 윤미경, 장안화. (2018). 패션 스타일링. 서울: 수화사, pp. 72-77.

15) 이기열, 김현경, 백경자, 범서희. (2018). 패션상품과 스타일리스트. 서울: 수화사, pp. 167-168.

16) 이경순, 김희섭, 박영신. (2011).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p. 211-213.

17) 권혜숙, 황선진, 권혜옥, 김운. (2013).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수화사, pp. 56-58.

18) 이경희, 김윤경, 김애경. (2006).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교문사, pp. 76-83.

19) 이건희, 김서영, 김형철, 이주미, 황정원, 권영민. (2012). 패션과 뷰티디자인을 위한 토틸코디네이션. 파주: 광문각, pp. 147-152.

20)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 (2010). 3차원 인체형상.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Retrieved August 8, 2019, from <https://sizekorea.kr/3d-body/korean-all-body-type/1>

21)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 (2010). 3차원 인체형상.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Retrieved August 8, (2019). from <https://sizekorea.kr/3d-body/korean-all-body-type/1>

보면 50대 이후 여성의 체형 유형은 하체가 빈약한 역삼각체형, 허리선이 구분되지 않는 사각체형, 배와 엉덩이 등의 하체가 큰 삼각체형의 분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표 2-1] 사이즈코리아의 여성 연령대별 체형 분포

연령	체형	역삼각체형		삼각체형		사각체형		
		작은	보통	보통	큰	작은	보통	큰
20대		○	○	-	○	-	○	-
30대		-	-	○	-	○	-	○
40대		○	○	-	○	-	○	-
50대		○	-	○	-	-	○	-
60대		○	-	○	-	-	○	○

[그림 2-1] 한국 40대 여성 체형의 분포와 특징



[그림 2-2] 한국 50대 여성 체형의 분포와 특징



[그림 2-3] 한국 60대 여성 체형의 분포와 특징



## 제2절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 1. 평면진단식 스타일링 가이드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일링 방식으로 여성의 체형을 도형의 실루엣 형태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그 특징에 따라 스타일링 하는 방법임.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여성의 체형을 도형 형태로 구분하므로, 2D 방식의 평면진단식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4] 평면식 스타일링 진단



- 본 연구에서는 사이즈코리아의 여성 체형 유형 3가지와 선행 연구<sup>22)</sup> 23)24)25)26)27)의 여성 체형 분류를 종합하여 가장 많이 중복된 유형인 역삼각체형, 직사각체형, 삼각체형, 모래시계체형, 동근체형의 5가지 체형을 선정하였음. 선정된 5가지 체형 유형에 따른 스타일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2) 윤미경, 장안화. (2018). 패션 스타일링. 서울: 수화사, pp. 72-77.
- 23) 이기열, 김현정, 백경자, 범서희. (2018). 패션상품과 스타일리스트. 서울: 수화사, pp. 167-168.
- 24) 이경손, 김희섭, 박영신. (2011).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p. 211-213.
- 25) 권혜숙, 황선진, 권혜욱, 김윤. (2013).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수화사, pp. 56-58.
- 26) 이경희, 김윤경, 김애경. (2006).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교문사, pp. 76-83.
- 27) 이건희, 김서영, 김형철, 이주미, 황정원, 권영민. (2012). 패션과 뷰티디자인을 위한 토틸코디네이션. 파주: 광문각, pp. 147-152.

## 1) 역삼각체형(INVERTED TRIANGLE)

- V형 체형이라고도 하는 역삼각형 체형은 삼각형 체형과 정반대인 경우로 가슴과 상체가 크고 하체가 작은 불균형한 체형을 말함. 역삼각 체형은 등과 어깨너비가 넓고 허리선 아래인 엉덩이와 대퇴부 너비는 비교적 작고 좁아 보임
  - 즉, 상체보다 하체가 작거나 좁아 보이는 특성을 가짐. 또한 어깨가 넓고 팔과 가슴이 발달하여 건장하게 보이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체형으로 보일 수 있는 체형임. 또한 엉덩이와 대퇴부가 비교적 작을 뿐만 아니라 엉덩이가 납작하고 넓적다리선 일자로 곧은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어깨, 등의 윗부분, 그리고 가슴에 살이 집중되어 있어 상체가 무거워 보여 신체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따라서 상의의 볼륨을 작게 보이게 하여 시각적으로 하체와의 균형을 이루게 스타일링하는 것이 중요함<sup>28)</sup>
- 그러므로 상의는 여유 있게 흘러내리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하면서 세로선이나 좌우 비대칭 등의 디자인으로 시선을 중심이나 아래쪽으로 유도한다면 역삼각형 체형을 보완할 수 있음. 어깨를 강조하지 않는 레글런이나 돌먼 슬리브의 재킷이나 코트, 좁고 깊게 패인 V넥크라인, 어깨를 좁아 보이게 하는 부분적인 스트라이프 무늬의 상의를 선택해야 함
  - 색상은 어두운 색상의 상의와 밝은 색상의 하의를 연출하여 상반신은 수축되어 보이고 하반신은 팽창되어 보이도록 하여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또한 허리 부분에 악센트 배색이 들어가면 허리선 시선을 유도할 수 있어 역삼각체형의 스타일링에 바람직함
  - 역삼각체형은 상체를 더욱 부각시키는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상의의 가슴선에 서링이나 프릴과 같은 디테일, 형태나 소재에 볼륨이 있는 디자인, 퍼프 소매, 어깨 견장, 폭이 넓은 칼라 등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시선을 상체에서 하체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므로 하의에 디자인 포인

28) 김유경. op., cit., pp. 94-95.

트를 뒀. 엉덩이 부분에 주름 분량이 있어서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스커트나 A라인 스커트, 디테일이 있어서 시선을 끄는 스커트를 입거나, 눈길을 끄는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 솔리드 상의에 프린트 팬츠나 프린트 스커트를 매치하여 포인트를 아래쪽에 두도록 스타일링을 제안함. 상체에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나 래글런 슬리브 상의, 짧은 상의는 피해야 함

[그림 2-5] 역삼각체형의 스타일링 방법



## 2) 직사각체형(RECTANGLE)

- 바나나형, 애슬레틱형, 보이쉬형이라고도 하는 직사각체형은 허리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원형 체형과 유사하지만, 허리둘레가 가슴과 엉덩이둘레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직사각체형은 어깨, 허리, 엉덩이와 대퇴부의 넓이가 거의 같은 폭을 가지고 있어 상체와 하체의 너비가 비슷한 일직선의 체형임. 상대적으로 어깨와 엉덩이 폭이 좁고 다리가 가늘며 가슴이 작고 납작함. 또한 허리선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허리가 굽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이 적고 여성스러운 곡선미가 없이 각이 진 느낌임. 직사각체형은 몸 전반에 살이 없어 볼륨감이 없고 미성숙한 이미지가 강한 체형과 골격이 크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건장한 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29)</sup>
- 이러한 직사각체형은 신체의 균형은 잡혀있지만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결여되어 있고 각진 느낌을 주므로 허리를 강조하고 가슴에 디테일을 주며 엉덩이와 하체에 볼륨을 살려 곡선의 착시현상을 주는 스타일링이 필요함<sup>30)</sup>
  -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실루엣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가슴 부분에 디테일을 주고 엉덩이와 하체에 적당한 볼륨감을 살려 각진 느낌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도록 스타일링해야 함
  - 직사각체형은 세로로 허리 다트가 있는 디자인, 프린세스 라인의 재킷이나 코트, 원피스를 선택하며, 특히 재킷이나 코트의 경우에는 어깨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선택해야 함. 또한 몸통보다는 얼굴 위쪽으로 시선이 향하도록 V넥라인이나 깊은 U넥라인을 선택하고 목걸이, 귀고리,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를 목 주위에 가벼운 포인트로 장식해야 함
  - 직사각체형은 각진 느낌을 주는 보트 넥라인이나 스퀘어 넥라인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의복과 구분이 명확한 색의 벨트나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폭이 넓은 벨트의 착용은 허리에 시선이 유도되므로

29) 이경순, 김희섭, 박영신. 패션스타일링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교문사, pp. 212-213.

30) 박명희, 김효숙, 이순재, 황진숙, 고현진, 이소영, 방수란. (2015). 패션과 스타일링.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pp. 182-183.



### 3) 삼각체형(TRIANGLE)

- 서양배(pear)형 체형이라고도 하는 삼각체형은 좁은 어깨에 큰 엉덩이를 가진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 하체 부분의 골반이 크거나 엉덩이 아래와 양쪽 넓적다리에 살이 많은 체형임
  - 전통적인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체형으로, 상체가 왜소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성스럽게 생각하는 체형이기도 함.<sup>31)32)</sup> 그러나 등이 짧고 허리가 가는 반면, 허리가 길고 엉덩이 아래에 살이 많아 다리가 짧으며 하체가 무겁고 커 보이기 때문에 샤프한 이미지가 부족해 보일 수 있음<sup>33)</sup>
- 이러한 삼각체형은 상체보다 하체에서 무게감이 더 느껴지므로 의복을 통해 상의와 하의의 무게감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따라서 어깨선을 강조하여 빈약한 상체의 부피감을 살려 시선을 위로 유도하면서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하체로부터는 시선을 멀리 이끌도록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sup>34)</sup>
  - 상의의 넥라인은 보트나 스쿠프 넥라인을 선택하고, 어깨 견장이나 패드, 어깨의 수평적 디테일이 있는 티셔츠나 니트를 선택하거나 어깨 견장이나 패드로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함. 또한 상의의 경우에는 요크선에 주름, 핀턱, 셔링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이나 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엉덩이를 보완하고 퍼프 소매의 상의로 상체에 볼륨을 주어 시선을 상체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하의의 경우에는 A라인이나 플레어스커트와 같이 여유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디자인이나 하의의 앞과 뒤에 턱이 있는 디자인이 바람직함
  - 또한 상의의 색상은 밝게 연출하고 하의는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여 상의와 하의의 균형을 맞추고 시선이 상의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몸에 타이트한 의복은 오히려 상하의 균형을 깨뜨리고 하체를 더욱 부각시켜 보이므로 피하는 것이 효과적임

31) 오경화, 김정은, 구미지, 성연순, 김세나. (2007). 패션이미지 엽. 서울:교문사, p. 136.

32) 임미애, 김주경, 김민경. (2009). 패션 스타일링. 서울:교문사, p. 90.

33) 장성은, 이종숙. (2008).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토탈 패션-뷰티 코디네이션. 서울:경춘사, p. 90.

34) 김유경. (2012). 패션스타일링. 서울: 와이북, pp. 93-94.



#### 4) 모래시계체형(HOURLGLASS)

- 여성의 체형을 실루엣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도형이나 과일 형태에 빗대어 체형별 패션 가이드를 하는 경우에 모래시계체형을 ‘이상형’으로 간주하며, 모래시계형 체형을 시각적으로 가장 매력적이며 안정감, 균형미를 가진 체형으로 봄<sup>35)</sup>
  - 모래시계체형은 어깨와 등이 넓으며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이 있는 반면 허리가 가는 체형으로 건강미와 관능미를 동시에 지님. 전체적으로 신체의 위·아래가 균형 잡혀 보이지만 가는 허리로 인해 가슴과 엉덩이가 실제보다 더 크게 강조되어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스타일링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는 허리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줄일 수 있게 보완하면서 몸매의 곡선과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하여 매력적인 여성미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임
  - 모래시계체형은 허리가 들어간 싱글 브레스티드 재킷이나 페플럼이 있는 재킷 등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디자인의 상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엉덩이를 덮는 박스형의 상의나 재킷, 루즈한 핏의 스웨터는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더욱 크게 강조하는 디자인 또한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스루 드레스, 펜슬 스커트, 브이넥 탑, 슬림핏 팬츠 등 내추럴한 곡선미를 살리는 아이템을 제안함
  - 몸매의 곡선을 따라가는 라인을 그대로 살리고, 특별히 과장하거나 축소할 부위는 없음

35) 사이트 참고. <https://www.mygoldenthimble.com/dress-acordingly-to-your-body-shape>. (자료검색일. 2022. 5. 16.)

[그림 2-8] 모래시계체형의 스타일링 방법



## 5) 둥근체형(OVAL)

- 사과형이라고 하는 둥근 체형은 몸의 중앙부가 두꺼워 허리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체형임. 둥근체형은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가 모두 발달한 체형으로 몸에 살이 많고 특히 허리와 배 부위에 살이 많아 상체와 하체가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가진 것이 특징임
  - 이러한 체형은 아동이나 중년, 그리고 서구인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체형으로, 둥글고 부드러우며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체형이지만 세련미와 성숙한 이미지가 빠져 있음
- 그러므로 의복의 세로 직선이나 절개선, 프린세스 라인 등의 디자인적인 착시현상을 활용하여 날씬하면서 키가 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선이 몸통 부분을 향하지 않고 얼굴이나 어깨로 향할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이 좋음<sup>36)</sup>
  - 색상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상의 수축색을 사용하고, 색상이나 무늬를 위아래로 통일시켜 시각적으로 긴 라인을 형성하도록 해야 함. 허리라인을 가리는 여유 있는 상의와 타이트한 하의의 스타일링으로 세련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함
  - 소재 선택에 있어 너무 얇은 소재는 체형을 더욱 드러내고, 두꺼운 소재나 광택감이 있는 소재는 부피감이 부각되어 보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 허리에 장식이나 리본, 벨트 등을 하거나 허리 라인에 컬러가 나뉘는 배색은 오히려 굵은 허리를 강조하여 단점을 부각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체에 여유 분량이 많은 러플, 살이 더 찢 듯이 보일 수 있는 광택 있는 소재 사용은 피해야 함

36) 이경희, 김윤경, 김애경. (2006).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교문사, p. 83.



## 2. 입체진단식 스타일링 가이드

- 한국스타일컨설턴트협회<sup>37)</sup>에서 소개하는 입체진단식 스타일링은 일본에서 고안된 스타일링 방식으로 일반적인 도형구분식 스타일링과 달리 여성의 체형을 입체적 관점에서 진단하며, 시각과 촉각 진단을 병행하여 다차원적으로 진단하여 진행하는 스타일링 방식임
- 정면과 측면, 후면 등 360° 관점에서 돌며, 시각과 촉각을 통해 여성의 체형을 진단하므로, 3D 방식의 진단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체의 외형은 골격, 근육, 피하지방으로 만들어지므로, 골격의 크기, 근육의 발달 정도, 피하지방의 분포와 양, 체형 입체감의 유무, 상·하체 균형감 등으로 체형 타입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스타일링 방식을 제안함
- 진단을 거쳐 체형 타입을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디자인과 소재, 스타일링 방식, 잘 어울리는 무늬의 스타일링 가이드가 비교적 세밀하고 정교한 편임

[그림 2-10] 입체진단식 체형 타입의 종류



37) 한국스타일컨설턴트협회, <https://kstyleconsultant.modoo.at/?link=e0n465ji>

[표 2-2] 체형 타입별 신체 특징

스트레이트 타입	웨이브 타입	내추럴 타입
목 - 짧은 편 몸통 - 두툼, 입체적 쇄골, 견갑골 - 간혹 보임 육감적 바디 라인 하체보다 어깨, 가슴 발달 허리 짧음 상체에 살이 많음 피부 질감 - 탄력 있음 손등 두께 - 도톰	목 - 비교적 긴 편 몸통 - 비교적 납작, 타원형 뼈 골격 - 가녀림, 쇄골 보임 슬림한 느낌의 바디 어깨 - 처짐 곡선적 바디라인 친절하고, 우아한 인상 허리 - 깊 하체에 지방이 잘 붙음 손등 두께 - 얇고 납작	마른 경우가 많음 키 - 큰 경우가 많음 골격 - 굵고 도드라짐 어깨가 반듯하고 각짐 직선적이고 뼈 중심 직사각체형 또는 자형 역삼각형 실루엣 하체에 살이 없다 피부 질감 - 건조, 얇음 손등 두께 - 얇고 납작

### 1) 스트레이트 타입

- 비교적 상체에 무게 중심이 있으며, 살이 찌면 상체에 먼저 살이 붙게 되어 사과형 체형에 가까워짐
  - 근육이 붙기 쉬운 타입이며 어깨와 가슴이 발달된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우 글래머러스하게 입체감이 있는 체형으로 보여짐
  -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슴과 몸통이 입체적인 동그란 체형이며, 견갑골이나 쇄골 등 골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편임
  - 비교적 짧은 허리를 가진 경우가 많고, 팔·다리는 길고 각선미가 좋은 경우가 많음
  - 한국의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으로는 김혜수, 조여정, 권유리 등이 스트레이트 타입에 속함
- 스트레이트 타입에 어울리는 스타일링 이미지는 고급스러운, 쿨한, 세련된 이미지임
  - 어울리는 핏은 레귤러핏이며, 타이트하게 입거나 오버핏으로 입으면 살이 더 찌게 보임. 'H' 실루엣 또는 'I' 실루엣으로 직선 라인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좋음
  - 디자인 선택 시는 변형이 많이 된 옷보다는 기본형 디자인이 가장 좋음. 디테일의 크기도 너무 크거나 작게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음
  - 스트레이트 타입과 잘 맞는 소재는 외관을 잡아주는 탄력 있는 소재

로 면, 가죽, 실크, 모직 등의 천연소재가 좋고, 너무 얇고 비치는 소재는 어울리지 않으며, 거칠고 지나치게 두꺼운 소재도 피해야 함

- 무늬를 사용하는 경우 대칭인 타탄체크, 기본 굵기의 스트라이프 등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피해야 하는 스타일은 프릴이나 레이스, 리본 등의 장식이 많은 디자 인임

## 2) 웨이브 타입

○ 비교적 하체에 무게 중심이 있는 타입이며, 살이 찌게 되면 하체에 먼 저 살이 붙게 되어 서양배형 체형에 가까워짐

- 근육보다는 지방이 많아 소프트한 피부 질감을 가졌으며, 가녀린 어깨와 가슴보다 하체가 발달한 경우가 많음
- 측면에서 봤을 때, 가슴과 몸통이 얇고 편평한 입체감이 적은 체형이 며, 견갑골이나 쇄골 등 골격은 가녀린 편임
- 처진 어깨와 긴 허리를 가진 경우가 많고, 팔·다리는 비교적 짧은 경 우가 많음
- 한국의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으로는 이보영, 손예진, 송혜교, 홍은희 등임

○ 웨이브 타입에 어울리는 스타일링 이미지는 화려한, 친절한, 여성스러 운 이미지임

- 어울리는 핏은 슬림핏이며, 오버핏으로 입으면 옷이 부담스럽게 느껴 지게 표현됨. 'X' 실루엣이 잘 어울리며 곡선 라인으로 전체적인 분위 기를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음
- 디자인 선택 시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사용된 디자인이 좋음. 리본, 프 릴, 레이스 등이 잘 어울리며, 특별히 어깨와 가슴 부위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시선을 위쪽으로 집중시키게 되므로 좋음. 허리선은 하이 웨이스트가 좋음
- 어깨가 처진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퍼프가 사용된 소매디자인, 어깨 패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음
- 웨이브 타입과 잘 맞는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로 스판 소재, 입체감

있는 표면 질감 소재, 광택 소재, 반투명한 소재도 잘 어울림. 너무 거친 소재나 표면이 너무 밋밋한 소재는 잘 어울리지 않음

- 무늬를 사용하는 경우 비대칭 무늬, 작은 크기의 무늬, 여성스러운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피해야 하는 스타일은 남성적 디자인, 여성화하지 않은 유니폼 디자인, 오버핏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스타일, 지나치게 단정하게 입거나 흐트러지게 입는 스타일링임. 가슴을 드러내는 네크라인도 피하는 것이 좋음

### 3) 내추럴 타입

○ 골격이 발달한 타입으로 어깨뼈, 손목뼈, 무릎뼈, 견갑골 등이 다른 타입에 비해 크고 두꺼움. 살이 잘 안 찌는 경우가 많으나, 살이 찌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이 찌므로 체격 전체가 크게 보임

- 손의 관절, 힘줄이 강하고 굵으며, 손가락 마디에서도 관절이 굵게 드러져 보임
-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평면적이어서 육감적이지 않은 체형이나 가슴과 엉덩이가 발달한 경우라도 허리가 가늘지 않아 직사각체형의 특징에 가까운 경우가 많음
- 견갑골이나 쇄골 등 골격은 두드러지게 굵고 단단한 편임. 어깨가 받듯하고 각진 경우가 많음. 살이 잘 안 찌고 키가 큰 경우가 많음
- 한국의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으로는 전도연, 정려원, 정유미, 김서형, 공효진 등임

○ 내추럴 타입에 어울리는 스타일링 이미지는 자유로운, 규율에 매이지 않은 이미지임

- 잘 어울리는 핏은 오버핏과 루즈핏이며, 레귤러핏으로 입으면 옷이 지나치게 밋밋하게 표현됨. ‘T’ 실루엣, ‘Y’ 실루엣, ‘A’ 실루엣이 잘 어울리며 과장된 라인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음. 허리선은 로우 웨이스트가 잘 어울림. 상의를 길게 입는 것이 개성 있고 멋지게 표현됨
- 디자인 선택 시 길이가 길고, 볼륨 있는 디자인이 좋음. 과장된 크기

의 디테일이 잘 어울림

- 직사각형 체형인 경우가 많아서 허리가 가늘지 않고 허리길어도 짧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슴과 힙을 강조하고, 허리는 벨트로 강조해야 함
  - 내추럴 타입과 잘 맞는 소재는 거친 소재로 스판 소재, 입체감 있는 표면 질감 소재, 광택 소재, 반투명한 소재도 잘 어울림. 너무 거친 소재나 표면이 너무 밋밋한 소재는 잘 어울리지 않음
  - 무늬를 사용하는 경우 하와이안 꽃무늬, 큰 무늬 등의 개성적인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피해야 하는 스타일은 너무 꾸민 듯이 입는 것, 너무 심플하게 입는 것,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것임
- 한국스타일컨설턴트협회에서 제안하는 입체진단식 스타일링 방법은 아직은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체형 타입을 정면에서 보는 평면 진단만이 아닌 골격의 형태, 근육분포, 체형의 입체감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스타일링 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림 2-11] 입체진단식 체형 타입별 스타일링 가이드 예시



[표 2-3] 체형 타입별 어울리는 스타일의 차이

	스트레이트 타입	웨이브 타입	내추럴 타입
자켓			
티셔츠			
바지			

### 제3절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

#### 1.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 이미지

- 중년 여성이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에 관한 심정희의 연구<sup>38)</sup>를 통해 중년 여성은 클래식한 스타일, 캐주얼한 스타일, 엘레강스한 스타일, 대담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중년 여성들은 부부동반 모임이나 동창회, 계모임, 아이들의 학교 방문, 결혼식 등과 같이 격식과 규범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품이 있고 부드러우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정장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옷감의 질이 가장 중요한 의복구매 요인인 중년 여성은 여러 벌의 의복을 구입하기 보다 좋은 질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을

38) 심정희. (2006). 중년 여성의 자기 이미지 유형화에 따른 의복 이미지 평가와 선호. 한국이류학회지, 30(11), p. 1614.

범서희의 연구<sup>39)</sup>를 통해 알 수 있음

- 정수인, 김영인의 연구<sup>40)</sup>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련된, 지적인, 여성스러운, 품위 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며 이를 위한 패션연출방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은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업주부들은 편안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은 대담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외모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타인을 의식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은 여성스럽고 수수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sup>41)</sup>([표2-4])

39) 범서희. (2005). 체형 결점 보완을 위한 니트웨어의 디자인 연구: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40) 정수인, 김영인. op.cit., p. 95.

41) 김성남, 이경숙. (2007). 20~40대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패션비즈니스, 11(4), pp. 29-41; 김옥진, 위은하. (2001). 중년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수트의 형태 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시각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5(3), pp. 525-536; 김유덕. (2004). 중, 노년층 여성의 의복 추구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6), pp. 746-757; 이명희, 이미연. (1995).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 30, 40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9, pp. 125-144; 류현주, 홍금희. (2001). 성인여성의 자기이미지와 상표이미지 및 쇼핑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8), pp. 1367-1377; 심정희, 연명흠. (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패션 제품의 이미지 선호도 : 35~59세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69, pp. 143-154

[표 2-4] 여성의 연령대별 추구 의복이미지

연구자	연구대상	추구 의복이미지
류현주, 홍금희 (2001)	20세 이상의 여성	세련된, 캐주얼한, 화려한, 여성적
박정혜, 이선재 (2002)	18~40세 여성	지적인, 발랄한, 낭만적, 섹시한
김유덕, 김미영 (2004)	30~60대 여성	우아한, 고급스러운, 도시적인, 세련된, 실용적인, 개성적인, 발랄한, 지적인, 날씬한, 깔끔한, 단정한, 매력 있는, 귀여운
심정희 (2007)	중년 여성	클래식한 스타일, 캐주얼한 스타일, 엘레강스한 스타일, 대담한 스타일
이경숙 (2007)	20~40대 여성	여성스럽고 우아한, 현대적이고 지적인,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전원적이고 보수적인
신수래 (2008)	20대 여성과 중년 여성	20대 여성 집단: 대담한, 캐주얼한, 특이한 중년 여성 집단: 품위 있는, 수수한, 여성적인
박은정 (2010)	중년 여성	지적인, 개성적인, 단정한, 귀여운, 캐주얼한, 여성적인
정수인, 김영인 (2014)	중년 여성 40~50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련된, 지적인, 여성스러운, 품위 있는 이미지 선호함
		고학력 전문직 여성: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전업주부: 편안하고 단정한 이미지
		개인주의 성향 집단: 대담한 이미지, 외모에 높은 관심
		타인을 의식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 여성스럽고 수수한 이미지
김희연, 한소원 외 2인 (2014)	50~60대 초반	개성추구 모던, 합리지향 베이직, 편안함 추구 컨템포러리, 보수지향 엘레강스

## 2. 50+세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 ○ 연령에 따른 패션 스타일링 고려사항의 차이

-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복 착용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므로 자신에게 적절한 패션스타일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의복은 스타일링을 통해 신체의 불만족스러운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자아의 확장과 신체적 만족감 또한 얻을 수 있음<sup>42)</sup>
- 특히 50+세대 여성들이 겪는 체형의 변화와 체중의 증가는 심리적 위기감을 유발시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의 표현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sup>43)</sup> 이러한 방법 중에서 신체의 결점을 비교적 쉽게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의 선택과 스타일링은 50대 이후의 자아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젊어지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중년 여성들은 피부 관리, 운동, 미용 기술 및 성형 수술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함<sup>44)</sup>
- 50+세대 여성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나고 여가가 많아져서 의복에 관해 관심을 쏟게 되지만 유행에 관한 관심은 젊었을 때 만큼 높지 못하고 체형의 맞춤새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sup>45)</sup>
- 이정은<sup>46)</sup>은 40~50대 여성이 50대 이후 변화한 체형 보완이나 이미지 연출,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링을 위해 패션 정보를 탐색하는 등 패션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과거와 달라진 체형의 변화로 인해 스타일링의 만족도가 낮아져 스타일링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스타일링 시 50대 이후 변화한 체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맞춤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부와 하체의 부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음<sup>47)</sup>

42) 심정희, 박수진. (2007). 중년 여성의 체형에 따른 의복 태도. 한국외류학회지, 31(1), p. 34.

43) 위은하. (1999). 중년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를 위한 의복형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

44) 이정은. (2019). 중년 여성의 맞춤형 스타일링을 위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1.

45) 이영윤, 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외류학회지, 6(2), p.18.

46) 이정은(2019), op.cit. p. 63.

47) 이정은(2019), op.cit. p. 90.

- 또한 이정은<sup>48)</sup>은 40~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40대는 타인의 스타일을 모방하기보다는 나이에 어울리면서 날씨가 기후 변화에 맞추어 의복을 선택하고, 50대는 스타일보다는 편안함을 중시하며 체형 커버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스타일링한다고 하였음
- 장안화<sup>49)</sup>는 60대 여성의 의복 선택기준이 체형 커버, 젊음, 무난, 유행의 순으로 나타나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디자인에 가장 역점을 두며, 착장 스타일로는 재킷과 바지, 이너웨어와 바지 등으로 바지 착장을 선호한다고 하였음. 이는 60대 여성의 디자인 선택기준이 체형 커버, 젊고 개성적인 순으로 나타난 김유덕, 김미영<sup>50)</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음
- 권진<sup>51)</sup>의 연구에서 60대 이상 실버 의류 패션 특성에 따른 선호도는 심미성, 기능성, 용도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미성의 측면에서는 옷으로부터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다음으로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나 현대의 실버 계층은 과거와는 다른 실버 패션의 디자인 척도가 파악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 위의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50~60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체형 커버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패션 스타일과 함께 젊게 보이는 패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60대 이상의 여성은 옷으로부터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8) 이정은(2019), op.cit. p. 63.

49) 장안화. (2005). op.cit. p. 581

50) 김유덕, 김미영. (2004). 중·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 이미지 연구. 한국의를학회지, 28(6), pp. 746-757

51) 권진. (2012). 실버 의류 개발을 위한 노인 선호도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4), p. 19-30.

[표 2-5] 연령대별 스타일링 시의 고려사항

연구자	연구대상	패션 스타일링 고려사항	특징
이영윤, 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	체형의 맞춤새	
이정은 (2019)	40~50대 여성	체형보완, 이미지 연출, 유행 반영, 복부와 하체 커버에 한계를 느낌	중년 이후에 스타일링 만족도가 낮아져 혼란을 겪음
	40대 여성	날씨와 기후 변화에 맞춰 선택	
	50대 여성	스타일보다 편안함. 체형 커버	
장인화 (2005)	60대 여성	체형 커버, 젊음	
김유덕, 김미영 (2004)	60대 여성	체형 커버, 젊음, 개성	
권 진 (2012)	60대 이상	심미성, 기능성, 용도성 (심미성 측면에서는 옷으로부터 심신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함)	

### 3. 50+세대 여성의 패션 선호 아이템과 디자인

- 50+세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아이템과 디자인을 살펴보면, 남영란 외의 연구<sup>52)</sup>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의복 아이템은 활동성이 좋고 편안한 점퍼를 선호하고, 상의의 경우에는 티셔츠, 하의의 경우에는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처리된 스판 소재의 팬츠인 밴딩 팬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년 여성은 몸통에 여유가 많아 상체의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상의와 발목 전·후 길이의 하의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팔과 어깨, 그리고 가슴의 윗부분을 노출하는 상의나 무릎 위 길이의 하의 등 노출이 있거나

52) 남영란, 최혜선, 김은경. (2013). 40대와 50대 중년 여성의 의복 착용 실태 및 맞춤새 비교 연구. 안국의상학회지, 15(3), p. 141.

- 실루엣이 드러나는 의복 형태는 선호하지 않는 것을 위은하, 박우미의 연구<sup>53)</sup>를 통해 알 수 있음
- 이정은은 40~50 여성은 중년 이후 늘어난 군살을 가릴 수 있으며 실내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베스트(조끼)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격식을 갖춰야 하는 외출복으로 복부와 밋밋해진 엉덩이를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날씬한 종아리를 부각해 전체적으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원피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sup>54)</sup>
  - 장안화<sup>55)</sup>의 연구에서도 중년 여성은 세미 피트 실루엣의 상의와 일자형의 발목길이 팬츠를 선호하며 무늬 없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튀지 않는 잔잔한 무늬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 세련되고 품위 있는 의복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였음
  - 60대 이상의 여성이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장안화<sup>56)</sup>는 세미 배기 바지, 샤넬 재킷, 반 플라 스웨터, 폴로 티셔츠, 기본 일자 바지, A 라인 스커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지역이 경남지역에 비해 반 플라 스웨터와 폴로 티셔츠, 일자 바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음
  - 석혜정, 한승희<sup>57)</sup>는 60대 이상의 여성이 테일러드 칼라의 엉덩이 선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재킷, 무릎 아래 길이의 플리츠 스커트를 선호하며, 바지는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발목 정도의 길이로 허리는 허리둘레선에 위치하고 벨트 형태의 허리 여밈을 선호한다고 하였음
  - 임현정, 이경희<sup>58)</sup>는 60대 이상의 여성에게 H형의 세미 피티드 실루엣으로 신체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디자인이 많고, 무늬는 무늬가 없는 것과 함께 플라워 무늬, 기하학무늬, 추상무늬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포켓 단추, 비즈 또는 큐빅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였음
- 
- 53) 위은하, 박우미. (2003). 중년 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 의복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9), p. 1121.
- 54) 이정은. (2019). op.cit., p. 86.
- 55) 장안화. (2005). op.cit., p. 581-584.
- 56) 장안화. (2006).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5), p. 496-504.
- 57) 석혜정, 한승희. (2010). 실버세대의 여성을 위한 의복 디자인개발. 복식, 61(1), p. 47-57.
- 58) 임현정, 이경희. (2008). 실버세대를 위한 브랜드에 나타난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3), p. 355-361.

- 이러한 50+세대 여성의 의복 스타일은 50대 이후의 체형 변화로 인해 체형이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선호하게 되었고, 편안한 착용감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와 나이에 맞는 연출을 고려한 결과로 보임.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체형이나 이미지에 어울리는가를 더 중요시하는 50+세대 여성들에게 의복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 표현과 신뢰감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함. 이에 50+세대 여성의 변화된 체형에 불편하지 않으면서 체형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감각적이고 전문적인 패션연출방식, 즉 스타일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4. 과거와 달라진 현대 50+세대 여성 선호 스타일의 변화

-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있어서 실제 연령보다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이 더 중요시되는데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의류를 선호했던 중년 여성들이 최근에는 젊고 트렌디한 신세대 캐주얼 의류 매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50+세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반영한 국내 패션시장에서는 경제력 있는 50+세대 여성들의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패션 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sup>59)</sup> 또한 이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스포츠 웨어, 레저 웨어, 캐주얼 웨어 등의 착용이 증가할 것이며, 패션 시장은 수요에 맞추기 위한 고감도와 다양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sup>60)61)</sup>
- 이들은 온라인 쇼핑, 피부미용의 꾸준한 소비와 함께 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소비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으며, 기존 중년의 주 소비 영역 이외에 새로운 시장 영역에 대한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사회의 현역으로서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은 20~30대 위주로 구매가 일어나던 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소비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40~50대의 영캐주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함<sup>62)</sup>

59) 정수인, 김영인. op.cit., p. 94.

60) “중년들 백화점 신세대 매장 점령”, <https://www.nocutnews.co.kr/news/585647?c1=225&c2=231>, (검색일: 2022. 5. 5)

61) 정수인, 김영인. op.cit., p. 94.

62) 박진희. (2017. 01. 05). 2017년 주목해야 할 5가지 소비트렌드. BC 카드 빅데이터센터 제휴보

---

고서. Retrieved March 4, 2018, from from <https://www.digieco.co.kr/KTData/Report/FILE/PDF/2017년%20주목해야%20할%205가지%20소버트렌드201701051483578919340.pdf>

## 제3장 연구방법

### 제1절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 스타일 양적 연구

####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의 수집

-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로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였음. 설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은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 유형을 조사하며, 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사항 및 고려하는 신체 부위,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음
-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50+캠퍼스나 서울시 50+센터를 이용하거나 문화센터, 평생학습 교육관 등을 이용하며 패션 스타일링이나 패션 스타일링 개선에 관심이 있는 50~60대 여성 42명으로 온라인 리서치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음
- 자료 수집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자 48명 중 응답이 불완전한 6명을 제외하고 42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음. 응답자의 연령은 만50~54세가 17명(40.4%), 만55~59세가 15명(35.7%), 만60~64세가 10명(23.8%)이었고, 응답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9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프리랜서와 기타가 각 5명(11.9%)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쇼핑빈도는 1~2개월에 한 번 쇼핑하는 응답자가 14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 달에 2~3번 이상과 3~4개월에 한 번 쇼핑하는 응답자가 각각 10명(23.8%)으로 나타났음

[표 3-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문항		빈도(명)	비율(%)
연 령	50~54세	17	40.4
	55~59세	15	35.7
	60~64세	10	23.8
	합 계	42	100
직 업	전업주부	19	45.2
	사무직	3	7.1
	전문직	3	7.1
	판매 / 서비스직	1	2.4
	생산 / 기능직	0	0.0
	교육직	2	4.8
	개인사업자(자영업)	4	9.5
	프리랜서	5	11.9
	기타	5	11.9
	합 계	42	100
쇼핑빈도	일주일에 1~2번 이상	2	4.8
	한달에 2~3번 이상	10	23.8
	1~2개월에 한 번	14	33.3
	3~4개월에 한 번	10	23.8
	1년에 1~2번	6	14.3
	1년에 한 번 미만	0	0
	기타	0	0
	합 계	42	100

## 2. 측정 도구(설문지)

○ 최종 설문지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첫째,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행 연구(63)(64)를 참조하여 '나는 주어진 상황과 장소에 따라 옷을 선택(만

63) 이현주(2014). 남성의 패션정보 활용특성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정보구조 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76-177.

나는 사람, 목적, 시간 등)한다'와 같이 평소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때 고려하는 것에 관한 15가지 문항을 구성하였고, 스타일링 시 가장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둘째, 응답자의 체형 특징에 관한 문항을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의복 착용 시 고려하는 신체 부위에 관한 문항으로 의복을 입을 때 신경이 쓰이는 신체 부위를 선행 연구<sup>64)</sup>를 참조하여 12가지로 선정하여 각 신체 부위에 대한 정도를 표시하는 1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음. 또한 스타일링 시 신경 쓰이는 신체 부위 순위와 이유를 자율 기술하는 1가지 문항을 구성하여 총 18가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셋째, '본인의 체형에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는 선호 스타일'을 선택하는 문항을 6개 항목으로 만들어 어떤 체형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유형을 고르는지 조사하였고, 평소에 스타일링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를 고르는 항목을 1문항 구성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본인의 체형에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는 선호 스타일'을 고르는 문항은 총 60개의 스타일 이미지 자극물을 제시하고, 다중 선택하도록 하였음. 자극물로 제시한 60개 스타일 이미지의 선정은 연구결과 3의 입체진단식 스타일링(3D)에서 체형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음. 스트레이트 체형 타입에 어울리는 스타일 이미지 20개, 웨이브 체형 타입에 어울리는 스타일 이미지 20개, 내추럴 체형 타입에 어울리는 스타일 이미지 20개, 총 60개의 스타일 이미지를 설문용 스타일 이미지로 사용하였음
  - 60개의 스타일 이미지는 설문 문항에 섞어서 배치하여 응답자가 자기 체형 타입에 맞는 스타일 이미지를 주로 선택하는지를 조사하였음
- 넷째, 스타일링 가이드의 필요성을 묻기 위하여 먼저 스타일링 정보를 얻는 방법을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지와 자신감을 묻는 항목으로 2개 문항을

64) 주미영, op. cit., p.291.

65) 이정은(2020), 중년 여성의 맞춤형 스타일링을 위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 48.

구성하고, 그래서 스타일링 가이드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물어보는 항목을 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인구통계학적 문항 4개로 구성하였음
- 이러한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항목에 포함된 ‘의복 착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관한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 포함된 ‘의복 착용 시 신경 쓰이거나 보완하고 싶은 신체 부위’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고, 보완하고 싶은 신체 부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위해 순서별로 3가지의 신체 부위를 나열하고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음.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3-2] 설문 문항의 구성

NO.	설문 문항	세부 사항	문항수	응답 방법
1	스타일링 시 중요 고려사항	스타일링 시 중요 고려사항	15	5점 리커트 척도
		스타일링 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1	명목적도
2	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신체 부위	응답자의 체형 특징	5	명목적도
		신경 쓰이는 신체 부위별 정도	12	5점 리커트 척도
		신경 쓰이는 신체 부위 순위	1	자유기술
3	체형을 고려한 선호 스타일 유형		6	명목적도
4	스타일링이 어렵다고 느끼는 요인		1	명목적도
5	스타일링 확신과 가이드 필요성	스타일링 정보를 얻는 방법	2	5점 리커트 척도
		스타일링 지식과 자신감 정도	2	5점 리커트 척도
		스타일링 가이드 필요성	1	5점 리커트 척도
6	인구통계학적 문항		4	명목적도

## 제2절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 스타일 질적 연구(심층면접)

-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연구의 틀을 양적 연구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문항을 답하는 사람의 견해, 의도를 충분히 알기 위해 같은 설문지로 특정 몇 가지 질문에 관해서만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 질적 연구의 심층 면접 대상자는 설문조사 대상자 전체 42명 중 5명으로 50대 전반 2명과 50대 후반 1명, 그리고 60대 2명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음
- 면접 진행은 설문조사 응답의 전체 과정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다가, 설문이 끝난 후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을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하였음. 질문의 방향은 응답자의 견해나 의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패션 스타일 선택이 어려운 이유
  - 본인 체형과 어울리는 선호 패션 스타일 선택 항목에서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는 유형을 섞어서 선택하는 이유
  - 패션은 50+세대인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제4장 연구결과

### 제1절 50+세대 여성에게 패션은 어떤 의미인가

- 50+세대에게 패션 스타일링의 의미는 외면적 스타일링 방식에 그치지 않고, 50+세대가 느끼는 '정체성 변화에 대한 적응', '나를 위한 투자',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품위의 표현', '아름답게 늙어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음

*이전에는 직업이 나의 정체성을 대표했지만, 퇴직하고 난 지금은 나의 겉모습과 나의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스타일링이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60대 초반)*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더 생각하고 스타일링하며 나아져 가는 모습에 기쁨을 느낍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중심적 쇼핑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50대 초반,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체형도 달라지고, 코로 나로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어지니까 자꾸만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무기력해져 가는 나를 바꿔보고 싶어서 스타일링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스타일링도 바꾸고 자신감을 얻고 싶어요.(50대 후반, 전업주부)*

*내 개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나에게 우아함과 세련됨을 더해줘서 나를 더 품위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50대 초반, 직장인)*

*이전에는 30년간 IT 회사에 다녀서 중요한 자리에는 자켓에 정장을 입었지만, 솔직히 IT 분야 특성상 옷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기능적으로 옷을 입어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퇴사하고 나니까 예전보다 나를 조금은 더 돋보이게 하고 싶고, 아름답게 늙고 싶습니다. 옷 스타일링에*

관해 관심을 두고 하나씩 배워보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난 공부하는 거 말고, 처음 재미있게 시도한 영역이 패션이에요. (60대 초반, 전업주부, 키 작음)

## 제2절 50+세대 여성 선호 패션 스타일

### 1. 추구 선호 이미지

- 50+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스타일링 과정에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다중으로 선택하게 한 후 다중응답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50대는 '세련된(20.2%)', '단정한(14.3%)', '우아한(10.7%)'의 순으로 나타났고, 60대는 '단정한(16.7%)', '편안한(14.3%)', '우아한(11.9%)'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이것을 통해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모두 '단정한', '우아한' 두 가지 이미지를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0대는 '세련된'을 60대는 '편안한'을 선호하는 것에서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세련되고 지적이며 품위 있는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정수인, 김영인의 연구<sup>66)</sup>와 일치함

66) 정수인, 김영인. op. cit. p. 95.

[표 4-1] 연령대별 추구 선호 이미지

표현 이미지	50대(명)	비율(%)	60대(명)	비율(%)	전체 (명)	비율(%)
<b>세련된</b>	<b>17</b>	<b>20.2</b>	<b>3</b>	<b>7.1</b>	<b>20</b>	<b>15.9</b>
<b>우아한</b>	<b>9</b>	<b>10.7</b>	<b>5</b>	<b>11.9</b>	<b>14</b>	<b>11.1</b>
젊어 보이는	5	6.0	4	9.5	9	7.1
독특한	3	3.6	0	0.0	3	2.4
고급스러운	2	2.4	3	7.1	5	4.0
활동적인	2	2.4	3	7.1	5	4.0
수수한	2	2.4	0	0.0	2	1.6
화려한	0	0.0	0	0.0	0	0.0
귀여운	0	0.0	0	0.0	0	0.0
지적인	4	4.8	0	0.0	4	3.2
<b>단정한</b>	<b>12</b>	<b>14.3</b>	<b>7</b>	<b>16.7</b>	<b>19</b>	<b>15.1</b>
여성스러운	0	0.0	0	0.0	0	0.0
품위 있는	6	7.1	4	9.5	10	7.9
<b>편안한</b>	<b>6</b>	<b>7.1</b>	<b>6</b>	<b>14.3</b>	<b>12</b>	<b>9.5</b>
멋있는	2	2.4	1	2.4	3	2.4
현대적인	2	2.4	0	0.0	2	1.6
깔끔한	3	3.6	1	2.4	4	3.2
점잖은	1	1.2	1	2.4	2	1.6
자연스러운	7	8.3	4	9.5	11	8.7
섹시한	1	1.2	0	0.0	1	0.8
합계	84	100.0	42	100.0	126	100.0

## 2.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 50+세대 여성의 스타일링 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도 입었을 때 편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편이다’와 ‘나는 옷이 체형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는 주어진 상황과 장소에 따라 옷을 선택(만나는 사람, 목적, 시간 등)한다’,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맞게 옷을 선택한다’, ‘나는 무엇보다 착용감이 좋은 편안한 옷을 선호한다’는 순으로 나타났음(표).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 그리고 폐경기를 거치면서 신체의 변화를 경험한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 과정에서 편안함과 체형 커버를 중요한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50+세대 여성의 유행과 관련된 고려 정도를 살펴보면, ‘나는 고급적 유행하는 스타일의 패션상품을 선택한다’에 대해서는 5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9%만이 ‘그렇다’라고 답함. ‘나는 유행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42명 중 73%인 31명이 ‘그렇다’라고 답해 유행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우선한다고 답함. 이를 통해 50+세대 여성들은 본인들이 유행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선호하고, 유행을 그다지 추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하지만 본 연구결과의 제1절에서 ‘본인이 스타일링 시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2절 연구결과의 ‘입고 싶은 것을 고른 결과’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표 4-2]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연령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주어진 상황과 장소에 따라 옷을 선택(만나는 사람, 목적, 시간 등)한다.	1	1	4	16	20
나는 내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1	5	16	14	6
나는 옷이 내 몸매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0	7	13	15	7
나는 옷이 체형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0	1	4	19	18
내가 추구하는 계층에서 많이 착용하는 패션상품을 선택한다.	3	11	14	12	2
내가 소속한 집단의 소속원들의 옷 입을 기준에 맞추어 입으려고 한다.	3	18	12	7	2
나는 내가 동경하는 이미지에 맞게 옷을 선택한다.	2	4	18	12	6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맞게 옷을 선택한다.	0	1	6	26	9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보다는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택한다.	1	1	16	18	6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주변 사람보다 먼저 시도하는 편이다.	4	16	12	10	0
나는 가급적 유행하는 스타일의 패션상품을 선택한다.	3	20	10	9	0
나는 유행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한다.	0	1	10	19	12
나는 현재 유행보다는 신체를 편안하게 하는 옷인가를 고려한다.	1	0	11	14	16
나는 무엇보다 착용감이 좋은 편안한 옷을 선호한다.	0	2	5	17	18
나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도 입었을 때 편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편이다.	0	0	5	8	29

### 3. 선호 패션 스타일

- 50+세대 여성에게 [그림 4-1]과 같이 총 60개의 스타일 이미지 자극물을 제시하고, '본인의 체형에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는 선호 스타일'을 다중 선택하도록 하였음

[그림 4-1] 선호 패션 스타일 설문에 이용한 60개의 자극물



#### 1)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과 낮은 스타일

- 50+세대 여성의 스타일 선호도 결과는 다음과 같음. 60개의 스타일 이미지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42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가 선택한 제시물 15번([표4-3], [표4-4])이었고, 전체 60개 자극물 중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것은 1명이 선택한 제시물 12번([표4-5])이었으며, 제시한 60개의 스타일 이미지 자극물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스타일 유형은 없었음

[표 4-3]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 1~18위

순위	#	이미지	선택 (%)	순위	#	이미지	선택 (%)
1	#15 내추럴 타입		57%	6	#45 내추럴 타입		43%
	2	#29 내추럴 타입			50%	7	#59 내추럴 타입
4		#35 스트레이트 또는 내추럴 타입		50%	8		#43 내추럴 타입
	5	#57 내추럴 타입		48%		10	#48 스트레이트 체형 타입
5		#13 내추럴 타입		45%	10		#6 웨이브 타입

순위	#	이미지	선택 (%)	순위	#	이미지	선택 (%)
10	#23		33%	16	#5		29%
	#39		33%		#10		29%
	#44		33%	18	#9		24%
	#58		33%		#22		24%
15	#2		31%	#41		24%	

[표 4-4] 선호도가 낮은 스타일 51~60위

순위	#	이미지	선택 (%)	순위	#	이미지	선택 (%)
60	#12		2%	51	#7		7%
56	#25		5%		\$14		7%
	\$40		5%		#34		7%
	#42		5%		#51		7%
	#46		5%		#56		7%

## 2) 선호도와 체형 타입

- 전체 60개 이미지 자극물에 대한 '본인 체형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선호 스타일' 응답 결과를 3가지 체형 타입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그림 4-2]와 같음. 50~60대 여성이 고른 '높은 선호도 스타일' 그룹에는 내추럴 타입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많았음

[그림 4-2] 선호 패션 스타일의 체형 타입별 구분



[그림 4-3] 선호도 구간별 스타일 특징



- 내추럴 타입 중에서도 선호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루즈핏 캐주얼이나 오버핏 세미 정장의 선호도가 높았음. 내추럴 타입 스타일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스타일의 특징은 가슴 브이넥이 깊어 보이거나 딱딱한 정장 스타일, 슬리브리스 스타일, 디자인 디테일이 과한 스타일이었음
- 웨이브 타입에 어울리는 유형 중 선호도가 높은 것은 리본을 목 주변에 포인트로 사용하는 디자인이나 깔끔하고 모던한 샤넬 스타일 디자인이 많았고, 선호가 낮은 스타일은 허리에 과장된 리본 장식이 있는 스타일과 과한 레이스, 과한 러플 장식의 특징이 있었음
- 스트레이트 타입 유형에서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은 니트 가디건의 깔끔한 스타일이거나 화이트 셔츠에 목걸이에 포인트를 준 스타일, 또는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 파워 수트 정장 스타일이었음. 스트레이트 타입 유형에서 선호도가 낮은 쪽은 슬리브리스 디자인, 체크 등의 무늬가 큰 스타일, 허리가 조여지는 하이웨스트 디자인이었음
- 위의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타입 각각에서 선호가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4-6]과 같음. 높은 선호 스타일의 공통적인 요소는 '깔끔한', '모던한', '트렌드가 반영된'으로 정의할 수 있음. 낮은 선호 스타일의 공통적인 요소는 '딱딱한 수트 정장', '무늬나 디테일이 크게 과장된', '슬리브리스(민소매)', '신체가 드러나는'으로 요약할 수 있음

[표 4-5] 체형 타입별 선호 스타일의 특징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높은 선호	*깔끔한 니트 코디 *전문가다운 파워수트	*깔끔한 원포인트 스타일 *모던한 레이스 원피스 *모던한 샤넬 스타일	*내추럴 오버핏 캐주얼 *오버핏 세미 정장 (유행핏이 반영된)
낮은 선호	*딱딱한 수트 정장 *무늬가 큰 캐주얼 *슬리브리스(민소매) *배가 딱 붙는 스커트	*허리 장식이 큰 원피스 *레이스, 러플이 큰 스타일	*딱딱한 수트 정장 *브이넥 깊은 스타일 *슬리브리스(민소매)

### 3) 50+세대 여성은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 설문 질문지에 강조하여 명시한 대로 '본인 체형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선호 스타일'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였음. 응답 결과에서 본인 체형 타입과 상관없이 내추럴 타입의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42명 응답자 중 57%에 해당하는 23명이 선택한 자극물 #15번의 경우를 들 수 있음.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간 연령대에서 고르게 #15번 자극물을 선택하였는데, 선택한 23명 중 8명만 실제로는 내추럴 타입 체형에 속하였고, 2배에 해당하는 15명은 본인의 체형 타입에 맞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선택하였음. '본인 체형과 어울리는 선호 스타일'을 묻는 조사였지만,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모르거나,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더라도 맘에 드는 스타일이라면 일단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15번 케이스 외에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아 높은 선호도 스타일로 그룹핑된 스타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내추럴 타입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많았고, 자연스러운 오버핏 캐주얼이나 세미 정장이 대부분이었음
- 스타일 선택 시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유행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유행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50+세대 응답자들은 유행이 반영된 오버핏 유형을 많이 선택하였음. 이는 오버핏 트렌드가 이제는 50+세대 여성도 시도하고 싶어 하는 대중적인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50+세대 여성이 유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행의 영향을 생각 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셋업 스타일의 정장 유형보다 캐주얼이나 세미 정장 유형을 더 많이 선호한 것은 T.P.O 라이프 스타일상의 이유로 딱딱한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야 할 모임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세팅된 정장 유형보다 캐주얼이나 세미 정장 유형을 더 많이 선호한 것은 앞 단계의 설문 '추구 선호 이미지'의 설문에 '세련된 > 단정하고 > 우아한'의 순서로 자기의 추구 이미지를 응답한 것과는 좀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음. 50+세대 여성은 본인이 세련되고 단정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스타일 유형을 고를 때는 유행이 반영된 핏, 내추럴하고 시크한 매력이 있는 세미 캐주얼이나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였음

- 이번 설문결과에서 나온 '높은 선호도 스타일 그룹'은 기존의 50+세대 여성의 착장 스타일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스타일 유형과는 약간 다른 '트렌드가 반영된 젊은 스타일 그룹'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특히 높은 선호도 그룹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5, #29, #35, #57, #13, #45, #48, #6, #23, #39, #44, #2, #5, #22번 자극물은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모두 선택한 '트렌드가 반영된 젊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음(그림 4-4)

[그림 4-4] 높은 선호도를 얻은 스타일 유형



- 50+세대 여성은 '본인 체형과 어울리는 것을 고르는' 설문에서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도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고르고, 본인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으나 유행이 반영된 젊은 스타일을 골랐으며,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으나 루즈하거나 오버핏의 세미 캐주얼을 선호했음. 이러한 '선호 취향, 체형 타입, 주로 입는 스타일 간의 불일치'가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는 요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였음

## 제3절 패션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이유

### 1. 50+세대 여성이 얘기하는 ‘스타일링이 어려운 점’

#### 1) 본인에게 어울리는 좋은 코디법을 몰라서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에서 스타일링이 어려운 첫 번째와 세 번째 응답률을 얻은 ‘좋은 코디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어렵다’와 ‘나에게 딱 맞는 스타일링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결과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좋은 코디법을 모르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려움임
- 심층 면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내용은 50+세대 여성들은 그동안 주부와 엄마, 직장인의 역할로 열심히 살아오느라 본인에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링에 대해 잊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고, 이제는 패션 스타일링에 자신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진을 좀 보세요. 나는 주로 이렇게 입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스타일을 좀 바꿔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내 옷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만 하면서 사느라, 패션 관련으로는 너무 자신이 없네요.(60대 초반, 전업주부, 패션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을 둔 케이스)*

*나한테 어울리는 옷 기준을 모르겠어요. 사실은 체형을 가리려고 다 덮는 걸 입는 것 같은데, 나에게 뭐가 어울리는지 몰라서 그냥 좋아 보이는 걸 골랐어요. 그리고 사실 세련된 옷 코디법을 잘 몰라요.(50대 후반, 전업주부)*

*얼마 전에 고향 친척 모임에 갔는데, 남동생이 불러내서는 ‘누나, 옷이 그게 뭐냐고... OO는 저렇게 예쁘게 입고 왔는데, 누나는 왜 이런 잠바 같은 걸 입고 왔어?’라면서 뭐라고 하고 무시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서... 나도 좀 멋있게 입어보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만 살아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깊이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내왔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분위기에 맞게 입느라 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나에게 어떤 분위기와 스타일이 어울릴지 이제 좀 찾아보려고요.(50대 초반, 프리랜서)

## 2) 체형 변화가 커서 스타일링이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에서 24%로 공동 1순위를 차지한 '체형이 변했는데, 체형 커버를 위한 좋은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에서도 50+세대 여성들은 체형 변화가 커졌고, 이전에 어울리던 옷들이 점점 더 안 어울리게 되어서 스타일링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추럴 타입의 체형이라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내추럴 타입에 어울리는 오버핏이 안 어울릴 것 같고, 예전엔 날씬하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배도 나오고 허벅지 살도 너무 없어서 옷 입어도 태가 안 나오.(60대 초반, 키가 작음)

체형이 변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핏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었는데, 갱년기 지나고 체형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었던 옷들도 주춤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50대 후반, 전업주부)

원래 예전에는 배가 안 나오고 힘이 커서 허리를 드러나게 옷을 입어 날씬해 보였는데, 지금은 배도 나오고 헐도 커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입어야 할지 점점 어려워져요.(50대 초반, 프리랜서)

체형이 무너지고, 살도 안 빠지고... 예전에는 물론 날씬했어요. 애 키울 때도 그러저럭 입었는데... 이제는 벨트가 원래 있는 옷도 벨트 다 빼서 입어요. 이제는 통이 큰 옷 외에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키가 작음)

예전에는 블랙으로 깔끔하게 입으면 그러저럭 괜찮았는데, 이제는 몸도 색도 달라지는지 블랙도 점점 안 어울려요. 주로 블랙만 입던 사람이라 다른 무슨 색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에요.(50대 초반, 직장인)

## 3) 사회적 변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스타일을 바꿔야 해서 어려움

- 심층 면접을 통해 50+세대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 변화를

겪고, 질병으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패션 스타일링의 용도, 목적, 기능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하였음. 사회적 변화와 질병을 이겨내는 것으로도 어려운데, 이로 인해 익숙했던 스타일링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울감과 막막함을 느낀다고 하였음

*이제 퇴직해서 직장도 안 나가게 되었고, 코로나로 사람 만날 일도 없어서 최근에 옷을 사러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출근할 때는 그 틀 안에서 입었는데, 이제는 몸도 아프고, 이전에 신던 구두도 신기 힘들어지고. 신발에 따라 옷이 너무 달라지는데... 이제 뭘 어떻게 입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패션에 관심이 적었다가 이제 관심 가지려고 하는 분)*

*제가 병원 가는 날은 기분이 좀 그러니까, 일부러 좀 화사하게 입어요. 그런 날은 색도 밝고 무늬도 화사한 거 입고 나에게 기분 좋게 해줘요. 평소에는 잘 안 입어도 그런 날 입고 싶은 옷이에요.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는 젊을 때 안 입어보던 스타일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신경 써야 할 부위가 자꾸 많아져서 힘들어요. 점점 편하고 여유 있는 스타일을 입게 돼서, 예쁜 옷을 봐도 나에게 안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못 골라요.(50대 후반, 전업주부)*

*몇 년 전에 느꼈는데, 이전에 나에게 너무 잘 어울리던 옷들이 어깨도 안 맞고... 몸무게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몸이 뒹가 바뀌었는지 입으면 불편하고 안 맞아서 우울해지고... 아직 맞기는 하더라도 이전 같은 느낌이 안 나서 당황했어요.(50대 초반, 프리랜서)*

#### 4) 한정된 유형만 입어 와서 변화가 어려움

*체형 커버가 되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뻘뻘해서 계속 같은 옷만 입고... 편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비슷한 스타일을 또 사게 돼요. 집에 옷이 다 똑같아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편한 거, 활동적인 거 말고 새로 어울리는 유형 알게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입을 새로운 코디법을 알면 좋겠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어느 날 사진 찍은 것을 쪽 찾아봤는데, 다 등산복 입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갔는데, 여행을 가도 사람들은 이제 정말 예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나만 너무 등산복 스타일로 다니는 것 같고, 평소에도 등산복 말고 다른 옷들을 좀 입어보려고요.(50대 초반, 프리랜서)

이젠 젊을 때 시도해보지 않았던 스타일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어요.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입고 난 후에 불편한 곳은 없어야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패션에 관심이 적었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

## 5) 안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게 되는 어려움

-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선호 패션 스타일을 고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평소 스타일과도 너무 다르고, 본인 체형이나 이미지와도 어울리지 않을 스타일을 선호유형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았음. 그 이유를 심층 면접을 통해 질문하였음.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는 유형을 섞어서 선택하는 이유'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 50+세대 여성들은 안 어울릴지도 모르지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자주 고르게 돼서 옷을 사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실제 입는 거랑 달라요. 옷을 고르다가 보면 자주 내가 입지도 않을 거면서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게 있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키가 작음)

아니, 나도 이 사진처럼 입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나도 저렇게 입고 보고 싶어서 골랐네요. 그런데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는 싶어요. 잘 어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50대 초반, 프리랜서)

옷을 사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보기에는 좋아서 시도해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제일 어렵고, 자주 외모를 가꾸는 데에 자신이 없어요.(60대 초반, 전업주부)

## 2.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숨은 이유’

-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에 답변한 50+세대 여성들의 ‘ 선호 패션 스타일 유형’과 ‘스타일링이 어려운 점’을 함께 살펴보면 50+세대 여성에게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1) ‘입고 싶은 스타일’과 ‘실제 주로 입는 스타일’ 간의 불일치

- 50+세대 여성은 ‘본인 체형과 어울리는 선호 스타일’을 고르는 설문에서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도 보기에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골랐음. 대표적인 예로 42명 응답자 중 57%에 해당하는 23명이 선택한 자극물 #15번의 경우를 들 수 있음.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간 연령대에서 고르게 #15번 자극물을 선택하였는데, 선택한 23명 중 8명만 실제로는 내추럴 타입 체형에 속하였고, 2배에 해당하는 15명은 본인의 체형 타입에 맞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선택하였음. ‘본인 체형과 어울리는 선호 스타일’을 묻는 조사였지만,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모르거나,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더라도 맘에 드는 스타일이라면 일단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도 않고, 평소에 입지도 않는 스타일을 고른 이유를 다시 물어본 심층 설문에서도 ‘본인 이미지와 안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체형에 안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좋아 보이는 스타일에 자꾸 눈이 가고 입고 싶어서 고르게 된다’는 답변을 하였음
- ‘실제 주로 입는 스타일’과 ‘입고 싶은 스타일’의 불일치가 스타일링의 어려움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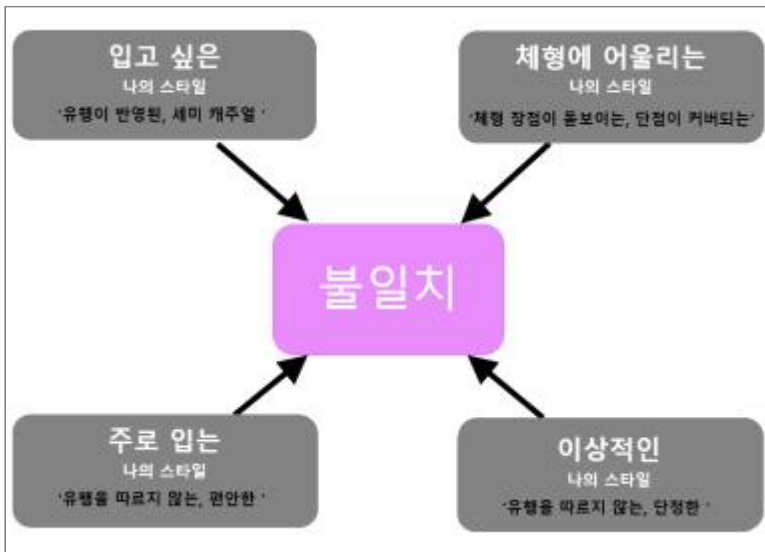
### 2) ‘입고 싶은 스타일’과 ‘이상적인 나의 스타일’ 간의 불일치

- 50+세대 여성 54%는 본인은 스타일링 시 ‘유행을 따르지 않는 성향이다’라고 응답했고, ‘가급적 유행하는 스타일의 패션상품을 선택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최근 유행이 많이 반영된 스타일을 57%가 골랐음. 또한 본인이 추구하는 패션 이미지에 대해서는 ‘세련된(15.9%)’, ‘단정함(15.1%)’의 순으로 응답했으나, 실제 입고 싶은 스타일 이미지를 고를 때는 루즈

핏이나 오버핏의 '세미 캐주얼'을 더 많이 선호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스타일'과 '입고 싶은 스타일(실제로 고르는 스타일)'의 불일치가 스타일링의 어려움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 이러한 '입고 싶은 스타일', '내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 '주로 입는 스타일', '이상적인 나의 스타일' 간의 불일치가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숨은 원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였음(그림 4-5)

[그림 4-5]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숨은 요인



## 제4절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 1. 체형별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 50+세대 여성을 위한 스타일링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체형의 50+세대 여성들이 적용하기 쉽도록 체형별 스타일링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했음
- 체형별로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체형을 ‘커버한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름. 체형을 감춘다는 의미의 ‘체형 커버’가 아닌, 각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음
- 50+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는 표면적인 이유와 숨은 이유가 있는 만큼, 본인의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의 ‘기준’을 먼저 알 수 있게 하고, 그 기준에서 취향과 트렌드를 응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가이드’를 제안하고자 했음

### 2.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의 수집과 분류

#### 1)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 선정과 검증

- 스타일링(Styling)은 색, 디자인, 실루엣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유행하는 형태의 옷을 창조시키는 것으로, 의복에서 액세서리까지 토털로 코디네이션하여 하나의 스타일로 조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의 제안 이미지로 의류뿐 아니라 소품이 함께 코디네이션된 토털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 스타일 제안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50+세대 한국 여성이 착용한 스타일 이미지로 제안하였음. 2022년 여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착용 이미지와 50+세대 패셔니스타들의 최근 스타일링 이미지를 이용하여 스타일링 가이드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바로 적용하기 쉽게 하였음
- 스타일링 가이드에 제시한 이미지 선정은 앞 단계에서 진행한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각 연구결과가 반영되도록

하였음

- 여성복 디자인 디렉터로 30년의 현장 경험을 지닌 패션 디자이너의 자문을 통해 스타일링 가이드에 선정된 이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자문 과정을 통해 가이드에 제안할 이미지 사진을 객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제안하는 전체 이미지 사진의 갯수를 줄여 간결한 스타일링 가이드가 되도록 압축하였음

[표 4-6]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 선정 시 적용한 연구결과

앞 단계의 연구		스타일링 가이드에 적용할 요소
문헌조사) 50+세대 여성 패션 스타일링 특징	체형 특징	50대 이후 여성의 체형 유형은 하체가 빈약한 역삼각체형, 허리선이 구분되지 않는 사각체형, 배와 엉덩이 등의 하체가 큰 삼각체형의 분포가 두드러짐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체형 커버와 편안함의 고려 적정이 있는 경우는 T.P.O에 대한 고려
	신호 패션 이미지	세련된, 단정한, 편안한의 이미지를 우선 고려
	고려하는 신체 부위	배, 엉덩이, 허리, 전체적인 몸매 순으로 고려
문헌조사) 체형별 스타일링 원리	도형진단식 스타일링 방식	50+세대 여성 현재 체형 특징에 맞는 스타일링 원리만 참고함
	입체진단식 스타일링 방식	본 연구 스타일링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체형진단 구분의 기준으로 삼음 50+세대 여성의 타고난 체형 특징으로 변형하여 적용해야 함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50+세대 여성의 신호 패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착용하는 옷보다 젊은 스타일링을 선택함</li> <li>• 설문 시에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나, 실제로는 유행이 반영된 스타일링을 선호함</li> <li>• 내추럴 타인이 아닌 여성도 개성 있고 여유분이 많은 내추럴 타인 스타일링을 선호했음</li> <li>• 깔끔한 원포인트, 디자인의 모던한 스타일링 선호</li> <li>• 장식이나 무늬가 큰 스타일링은 선호도 낮음</li> <li>• 민소매나 넥라인이 깊은 노출이 있는 스타일링은 선호도 낮음</li> <li>• 딱딱한 정장 스타일링은 선호도 낮음</li> </ul>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형 변했는데, 체형 커버 방법을 모르겠다</li> <li>• 좋은 코드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li> <li>• 나에게 맞는 스타일링 방법을 모르겠다</li> </ul>	

## 2) 스타일링 가이드 이미지 분류

○ 스타일링 가이드 제안 이미지의 분류, 단순화 과정은 아래와 같음

- 1단계) 키와 살찐 정도를 기준으로 9가지 항목으로 1차 분류
- 2단계) 평면진단을 기준으로 역삼각체형, 직사각체형, 삼각체형으로 27 항목으로 2차 분류
- 3단계) 입체진단을 기준으로 표준,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타입으로 16개 항목으로 재구성 및 단순화

[그림 4-6] 스타일 이미지 분류(27개로 2차 분류)



[그림 4-7] 스타일 이미지 항목 재구성(16개로 단순화)

	표준 타입 고르게 발달한 체형	스트레이트 타입 상체에 살이 많고, 하체살 적은 체형	웨이브 타입 위쪽에 살이 많고, 복리가 큰 체형	내추럴 타입 살이 더 얇고, 어깨가 작은 체형
실루엣	A, T, X, Y, H, I	H, I (상반 경우 제외)	Fit&Flare, H (상반 경우 제외)	A, T, Y (상반 또는 하반 경우 제외)
보통	역삼각-그림 키-보통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와 상반 폭차 큰 역삼각형	역삼각-그림 키-보통 • 해당 어깨 폭이 큰 역삼각 체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살이 있는 스트레이트 체형	역삼각-그림 키-보통 • 해당 어깨 폭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하반이 나온 세양체형 • 골반 어깨가 넓고 커다란 골반이 있는	역삼각-그림 키-보통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가 작은 내추럴체형
키작은	역삼각-보통 키-작은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와 상반 폭차 큰 역삼각형	역삼각-보통 키-작은 • 해당 어깨 폭이 큰 역삼각 체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살이 있는 스트레이트 체형	역삼각-보통 키-작은 • 해당 어깨 폭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하반이 나온 세양체형 • 골반 어깨가 넓고 커다란 골반이 있는	역삼각-보통 키-작은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가 작은 내추럴체형
살찐	역삼각-살찐 키-중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와 상반 폭차 큰 역삼각형	역삼각-살찐 키-중 • 해당 어깨 폭이 큰 역삼각 체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살이 있는 스트레이트 체형	역삼각-살찐 키-중 • 해당 어깨 폭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하반이 나온 세양체형 • 골반 어깨가 넓고 커다란 골반이 있는	역삼각-살찐 키-중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가 작은 내추럴체형
마른	역삼각-마른 키-중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와 상반 폭차 큰 역삼각형	역삼각-마른 키-중 • 해당 어깨 폭이 큰 역삼각 체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살이 있는 스트레이트 체형	역삼각-마른 키-중 • 해당 어깨 폭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하반이 나온 세양체형 • 골반 어깨가 넓고 커다란 골반이 있는	역삼각-마른 키-중 • 해당 어깨 넓이 골반 넓은 역삼각형 • 상체와 골반 폭차 큰 역삼각형 • 골반 어깨가 작은 내추럴체형

### 3. 스타일링 가이드의 체형 코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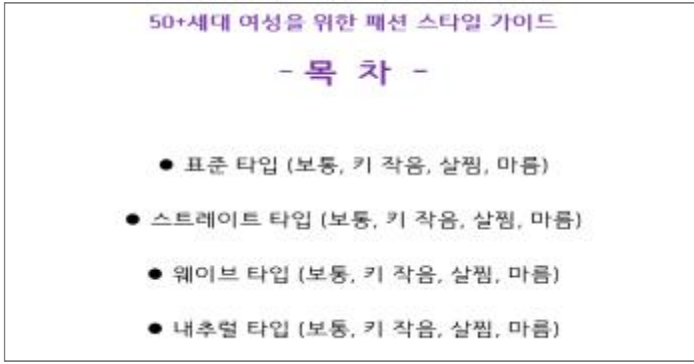
- 체형 코드 시스템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은 아래와 같음
  - '가이드가 제시하는 체형 코드 16가지' 중에서 '나에게 맞는 체형 코드'가 무엇인지 긴 설명 없이도 찾기 쉽게 해줌
- 현재 보고 있는 가이드 페이지가 '어느 체형에 해당하는 가이드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짐
- 체형 코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스타일링 가이드 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하였음. 사용자가 체형 코드를 이해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좁은 영역의 스타일링 가이드 콘텐츠 외에 다른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웨이브 타입'의 '살찐 체형'을 가진 사용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W-3' 항목의 가이드 콘텐츠 외에도 '살찐 체형'에 해당하는 '코드3'의 모든 항목을 살펴보며 '살찐 체형'에 해당하는 스타일링 가이드 내용을 확장하여 참고할 수 있음. 또한 '웨이브 타입'에 해당하는 '코드W'의 모든 항목을 살펴보며 '웨이브 타입'에 해당하는 스타일링 가이드 내용을 확장하여 참고할 수 있음
- 체형 코드는 모든 스타일링 가이드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하여 현재 보고 있는 스타일링 가이드 페이지가 어느 체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4.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의 구성

### 1) 목차와 활용법 안내

- 개발된 스타일링 가이드는 체형 타입과 체형 특징을 기준으로 그룹핑하여 50+세대 여성의 체형에 관한 필요를 반영하였음

[그림 4-8] 스타일링 가이드 목차



- 패션 스타일 가이드의 활용법을 아래와 같이 목차 뒤에 설명하였음

[그림 4-9] 스타일링 가이드 활용법 안내



## 2)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 가이드를 찾아주는 스타일 퀴즈

- 본인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 가이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스타일 퀴즈 1)과 2)를 통해 자신의 체형 타입과 특징의 코드를 찾도록 하였음
- 스타일 퀴즈 1)은 사용자가 제시된 4가지의 입체진단 체형 타입 코드 중에서 자신의 체형 타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질문임. (B)표준 타입, (S)스트레이트 타입, (W)웨이브 타입, (N)내추럴 타입 등 총 4가지 체형 타입에 대한 특징과 도식을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코드를 고를 수 있게 하였음

[그림 4-10] 스타일 퀴즈 1. 나의 체형 타입은?



- 스타일 퀴즈 2)는 사용자가 제시된 4가지의 체형 특징 중에서 자신의 체형 특징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질문임. (1)보통(비만도), (2)키 작음, (3)살찐, (4)마름 등 총 4가지 체형 특징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코드를 고를 수 있게 하였음
- 50+세대 여성의 스타일링과 관련된 고민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내용인 '살찐', '마름', '키가 작음'의 항목과 기본을 이루는 '보통'의 4가지를 선택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이외에 모든 50+여성이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배가 나온' 항목은 모든 대상에게 해당하는 항목일 가능성이 커 따로 떼어 구성하지 않고 전체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키가 큰'의 항목은 본 연구 가이드의 콘텐츠로는 제안하고 있지만,

50+여성의 고민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다른 항목의 스타일링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이어서 따로 구분하여 제안하지 않았음. 하지만 세부 체형 설명에서는 '키가 큰' 여성의 스타일링 사례를 다루었고, '키가 큰'이라는 체형 설명을 적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처럼 체형 특징 항목 수를 4개로 줄여 압축한 이유는 전체 구성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복잡하지 않은 가이드를 개발하고자 함임

[그림 4-11] 스타일 퀴즈 2. 나의 살찐 정도와 키는?

스타일 Quiz 2) 나의 살찐 정도와 키는?					
1	보통 (살찐 정도)	1 보통 (살찐 정도) 표준타입	S-1 보통, 스트레이트타입	W-1 보통, 웨이브타입	N-1 보통, 내추럴타입
2	키 작음 (160cm 이하)	2 키 작음 (160cm 이하) 표준타입	S-2 키 작음, 스트레이트타입	W-2 키 작음, 웨이브타입	N-2 키 작음, 내추럴타입
3	살찐	3 살찐 표준타입	S-3 살찐, 스트레이트타입	W-3 살찐, 웨이브타입	N-3 살찐, 내추럴타입
4	마름	4 마름 표준타입	S-4 마름, 스트레이트타입	W-4 마름, 웨이브타입	N-4 마름, 내추럴타입

- 스타일 퀴즈 2)는 활용자가 제시된 4가지의 체형 특징 중에서 자신의 체형 특징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질문임. (1)보통(비만도), (2)키 작음(160cm 이하), (3)살찐, (4)마름 등 총 4가지 체형 특징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코드를 고를 수 있게 하였음

### 3) 스타일링 가이드 세부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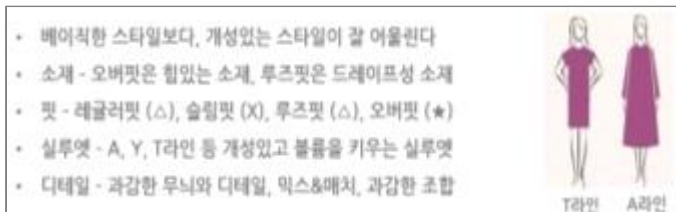
- 스타일링 가이드 전체 16개 체형별 제안은 'B-1'부터 'N-4'까지 전체 157페이지로 구성되었고, 세부 페이지 예시는 [그림 4-12]와 같음

[그림 4-12] 스타일링 가이드 세부 페이지(예시)



- 패션 스타일 가이드의 각 페이지에는 스타일 예시를 알려주는 사진 이미지와 함께 해당 체형 타입에 맞는 스타일, 소재, 핏, 실루엣, 디테일과 관련된 스타일링 원리를 기술하였음(그림 4-13)

[그림 4-13] 스타일링 원리 설명(예시)



















#### 4) 스타일링 가이드 MAP

- 패션 스타일 가이드의 전체 구성 MAP은 [그림 4-14]와 같음
- 이 맵을 통해 전체 16가지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호를 확인하여 해당 페이지로 갈 수 있음
- 스타일링 가이드 맵에는 각 체형 타입의 간단한 설명과 체형 타입별 제안 실루엣을 간략히 기재하였음

[그림 4-14] 50+세대 여성을 위한 스타일링 가이드 MAP

50+세대 여성을 위한

##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MAP

	<b>A</b> 표준 타입 고르게 발달한 타입 ※ 체형 : 균형 잡힌 큰 모래시계형 ※ 심리면 : 몸통 볼록한 여성각형 ※ 골격 : 어깨와 상하·팔만으로 표준 타입	<b>S</b> 스트레이트 타입 상체에 살이 많고, 입체감 있는 타입 ※ 체형 : 상체 비중이 큰 역삼각 체형 ※ 심리면 : 상체 볼록한 여성각형 ※ 골격 : 입체감이 있는 스트레이트 타입	<b>W</b> 웨이브 타입 허체에 살이 많고, 허리가 긴 타입 ※ 체형 : 어깨 좁고, 골반 넓은 삼각형 ※ 심리면 : 어깨에 나온 사슴배형 ※ 골격 : 허리가 길고 가느다란 웨이브 타입	<b>N</b> 내추럴 타입 골격이 단단하고, 어깨가 각진 타입 ※ 체형 : 어깨 넓고, 골반 좁은 역삼각형 ※ 심리면 : 몸통 볼록한 여성각형 ※ 골격 : 어깨가 각진 내추럴 타입
	<b>A, T, X, Y, H, I</b>	<b>H, I</b> (살핀 경우, 세미V)	<b>Fit&amp;Flare, H</b> (살핀 경우, 세미V)	<b>A, T, Y</b> (살핀 또는 키 작은 경우, H, X)
<b>1</b> 보통 (살핀 정도)	<b>A-1</b> 보통. 표준 타입 	<b>S-1</b> 보통. 스트레이트 타입 	<b>W-1</b> 보통. 웨이브 타입 	<b>N-1</b> 보통. 내추럴 타입 
<b>2</b> 키작음 (160cm이하)	<b>A-2</b> 키 작은. 표준 타입 	<b>S-2</b> 키 작은. 스트레이트 타입 	<b>W-2</b> 키 작은. 웨이브 타입 	<b>N-2</b> 키 작은. 내추럴 타입 
<b>3</b> 살찐	<b>A-3</b> 살찐. 표준 타입 	<b>S-3</b> 살찐. 스트레이트 타입 	<b>W-3</b> 살찐. 웨이브 타입 	<b>N-3</b> 살찐. 내추럴 타입 
<b>4</b> 마른	<b>A-4</b> 마른. 표준 타입 	<b>S-4</b> 마른. 스트레이트 타입 	<b>W-4</b> 마른. 웨이브 타입 	<b>N-4</b> 마른. 내추럴 타입 

- 본 구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타일링 가이드 보는 방법을 설명하였음. 세부 페이지의 구성을 설명하여 가이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4-15] 스타일링 가이드 세부 페이지 보는 법



## 5)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구성의 타당성 검토

- 개발한 스타일링 가이드를 사용해보기 이전에 여성복 디자인 디렉터로 30년의 현장 경험을 지닌 패션 디자이너 자문을 통해 스타일링 가이드의 전체 구성을 검토하였음. 또한 50+세대 여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스타일링 제안 방법인지 최종 검토하였음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결론

- 50+세대 여성에게 패션의 의미는 한 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음.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50+세대 여성에게 필요한 '정체성 변화에 대해 적응'하고, '나를 위해 투자하며', '자신감을 되찾고', '품위를 표현하고', '아름답게 늙어간다'고 하였음
- 50+세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패션 이미지 중 선호도가 높은 것은 '세련된 > 단정한 > 우아한 > 편안한' 순이었음
- 50+세대 여성들에게 60개의 스타일 이미지를 보여주고, '본인의 체형에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는 선호 패션 스타일'을 다중 선택하게 한 결과는 일반 50+세대 여성들이 주로 입는 패션 스타일과 매우 달랐음
  - 50+세대 여성은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도 보기에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고르고, 평소 50+세대 여성들이 입는 스타일과 다른 '유행이 반영된' 젊은 스타일을 골랐으며, 루즈하거나 오버핏의 세미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했음
  - 50+세대 여성은 '본인 체형과 어울리는 선호 패션 스타일'을 고르는 설문에서 본인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도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골랐음
  - 또한 50+세대 여성 54%는 본인은 스타일링 시 '유행을 따르지 않는 성향이다'라고 응답했고, '가급적 유행하는 스타일의 패션상품을 선택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최근 유행이 많이 반영된 스타일을 57%의 여성이 선택했음
- 이번 연구에서는 이처럼 50+세대 여성들은 평소에 입는 스타일과 많

- 이 다른 패션 스타일을 선호하고, 본인의 체형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선호하며, 본인도 모르게 유행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으며, 본인은 세련되고 단정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편안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주로 선택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음.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실제로 선택하는 스타일이 다르며,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음
- 50+세대 여성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스타일링이 어려운 이유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좋은 코디법을 모르는 점’, ‘체형의 변화가 큰 점’, ‘사회적 변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스타일링을 바꿔야 하는 점’, ‘한정된 유행만 입어 와서 변화가 어려운 점’, ‘안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고 실패하는 점’이라고 답하였음
  - 이번 연구를 통해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는 숨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50+세대 여성은 ‘입고 싶은 나의 스타일’, ‘내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 ‘내가 주로 입는 스타일’, ‘이상적인 나의 스타일’ 간의 불일치를 보였음.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숨은 원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 앞단의 연구에서 발견된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 스타일’, ‘스타일링이 어렵다고 느끼는 드러나는 원인과 숨은 원인’을 종합하여 해결하고자, ‘50+세대 여성을 위한 스타일링 가이드’를 개발하였음
  - 체형 결점 보완의 필요를 가장 크게 느끼는 50+세대 여성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체형 타입별 스타일링 가이드’로 구성하였음
  - 스타일 퀴즈를 통해 50+세대 여성이 스스로 본인의 체형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맞는 체형 제안 사례를 찾아가도록 하였으며, 체형 제안 사례로 사용한 스타일링 이미지는 ‘모두 50대 이상 여성이 착상한 체형별 이미지로 제안’하여 ‘따라 하기 쉬운 적용’을 돕고자 했음
  - ‘체형 코드 시스템’을 개발·적용하여, 보는 사람의 체형 코드에 맞는 자료를 찾기 쉽게 하였음. 체형 코드 시스템은 총 16가지 체형 코드로 구성되어, 이를 이용하면 ‘내 체형에 맞는 가이드’ 또는 ‘나와 비슷

한 체형의 스타일링 가이드'를 코드로 구분하고 쉽게 찾을 수 있음

- 연구의 처음 목적에 맞춰 50+세대 여성의 '선호 패션 스타일'이 반영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필요'에 맞는 스타일링 가이드를 개발하되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기 쉽도록'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활용

- 본 연구는 50+세대 여성들에게 패션 스타일링의 '의미'와 '필요', '선호 스타일',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을 '직접 묻고 분석하여' 얻은 스타일링 가이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50대 이후에 사회·신체적 변화로 어려움을 느끼고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기에 패션 스타일링은 '달라진 나'를 재정립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일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스타일링 가이드는 '50+세대 여성'에 맞춰진 스타일링 가이드로, 제안된 스타일링 이미지도 모두 50세 이상의 여성들이 착용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트렌드가 반영된 이미지 사진으로 제안되었고, 전체 157페이지, 470여 장의 스타일링 이미지가 16개 체형별로 구성되어 있음
- 50+세대 여성이 스타일링의 변화를 원할 때, 체형별 스타일링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음
-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연구로 개발된 스타일링 가이드가 50+세대 여성들에게 어떤 스타일링의 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주는지 그 효과를 관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됨. 후속 연구를 한다면 스타일링 가이드의 개선점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링 활동을 통해 50+여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인 변화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패션은 특성상 유행과 시대성이 반영됨.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인 패

- 션 스타일링 가이드도 지속적으로 유행과 시대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다면 의미 있는 스타일링 가이드로 계속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50+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상품 쇼핑몰에서 '체형에 맞는 코디네이션 플랫폼'을 구성하여 상품 제안과 판매를 하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부록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 패션 선호유형 조사 설문지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귀택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설문은 5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 스타일 선호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다른 목적으로 결코 사용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응답시간은 약 0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22년 6월

서울시 50+당사자연구 책임연구원 강 주 현

☞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의 나이는? ( )

- ① 만 50~54세    ② 만 55~59세    ③ 만 60~64세    ④ 65세~70세

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1개만

- ① 전업주부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교육직  
 ⑦ 개인사업자(자영업)    ⑧ 프리랜서(예: 디자이너, 작가 등)  
 ⑨ 기타( )

Q3. 귀하께서는 패션 제품을 얼마나 자주 쇼핑하십니까? ( ) 1개만

- ① 일주일에 1~2번 이상            ② 한 달에 2~3번 이상  
 ③ 1~2개월에 한 번            ④ 3~4개월에 한 번  
 ⑤ 일 년에 1~2번            ⑥ 일 년에 한 번 미만  
 ⑦ 기타( )

Q4.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 ) 1개만

- ① 은평구, 서대문구    ② 용산구, 마포구    ③ 종로구, 중구  
 ④ 강북구, 성북구    ⑤ 도봉구, 노원구    ⑥ 성동구, 동대문구  
 ⑦ 중랑구, 광진구    ⑧ 강서구, 양천구    ⑨ 영등포구, 동작구  
 ⑩ 구로구, 금천구    ⑪ 서초구, 관악구    ⑫ 강남구  
 ⑬ 송파구, 강동구    ⑭ 경기도            ⑮ 기타

☛ 다음은 귀하의 신체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Q1. 귀하의 키는 어디에 속합니까? ( ) 1개만**

- ① 151~155cm                      ② 156~160cm                      ③ 161~165cm
- ④ 166~170cm                      ⑤ 170cm 이상

**Q2. 귀하의 몸무게는? ( ) 1개만**

- ① 46~50kg                      ② 51~55kg                      ③ 56~60kg                      ④ 61~65 kg
- ⑤ 66~70kg                      ⑥ 71~75kg                      ⑦ 76~80kg                      ⑧ 81kg 이상

**Q3. 귀하의 상, 하체 비중은 어디에 속합니까? ( ) 1개만**

- ① 상, 하체가 고른 편이다                      ② 상대적으로 상체에 살이 많다
- ③ 상대적으로 하체에 살이 많다

**Q4. 귀하의 팔, 다리 길이의 특징은 어디에 속합니까? ( ) 1개만**

- ① 팔, 다리 길이가 보통이다                      ② 팔, 다리 길이가 보통보다 짧은 편이다
- ③ 팔, 다리 길이가 보통보다 긴 편이다

**Q5. 귀하의 신체 특징 중 해당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해주세요.**

- ① 머리가 (큰 편이다, 보통이다, 작은 편이다)
- ② 어깨가 (각진 편이다, 보통이다, 처진 편이다)
- ③ 허리가 (긴 편이다, 보통이다, 짧은 편이다)
- ④ 쇠골뼈, 견갑골, 무릎 등의 뼈가 (도드리지게 튀어나왔다, 보통이다)
- ⑤ 옆에서 봤을 때도 (입체적 체형이다, 보통이다, 납작한 체형이다)

☞ 의복을 착용할 때 고려하는 신체 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께서 의복을 입을 때 신경이 쓰이거나 보완하고 싶은 신체 부위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얼굴 형태	①	②	③	④	⑤
2	얼굴색	①	②	③	④	⑤
3	어깨	①	②	③	④	⑤
4	가슴	①	②	③	④	⑤
5	허리	①	②	③	④	⑤
6	배	①	②	③	④	⑤
7	엉덩이	①	②	③	④	⑤
8	허벅지	①	②	③	④	⑤
9	종아리	①	②	③	④	⑤
10	팔	①	②	③	④	⑤
11	전체적인 몸매	①	②	③	④	⑤
12	키	①	②	③	④	⑤

Q2. 위 문항(Q1번)에서 평가하신 신체 부위 중에서 의복을 통해 보완하고 싶은 신체 부위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순위	신체 부위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 다음은 평소에 느끼는 스타일링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옷 입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

Q1. (           ,            ) 2개 선택

- ① 체형이 변했는데, 체형 커버를 위한 좋은 방법을 모르겠다
- ② 좋은 코디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어렵다
- ③ 색상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어렵다
- ④ 나에게 딱 맞는 스타일링 방법을 모르겠다
- ⑤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어렵다

☞ 다음은 신체 특징에 따른 선호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Q1. 제시해 드리는 사진을 보시고, 귀하께서 본인 체형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선호 스타일을 표시해 주십시오. (갯수 제한 없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평소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때 고려하는 것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께서 평소에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어진 상황과 장소에 따라 옷을 선택(만나는 사람, 목적, 시간 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옷이 내 몸매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옷이 체형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추구하는 계층에서 많이 착용하는 패션상품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소속한 집단의 소속원들의 옷 입는 기준에 맞추어 입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동경하는 이미지에 맞게 옷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맞게 옷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보다는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주변 사람보다 먼저 시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급적 유행하는 스타일의 패션상품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유행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현재 유행보다는 신체를 편안하게 하는 옷인가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무엇보다 착용감이 좋은 편안한 옷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도 입었을 때 편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연예인의 스타일에서 스타일링 정보를 얻고 모방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스타일링 정보를 얻고 모방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의 패션 스타일링을 자신 있게 완성할 패션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에게 맞는 스타일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Q2.	귀하께서 의복을 입을 때 가장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아래의 보기에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p>① 세련된                    ② 우아한                    ③ 젊어 보이는                    ④ 독특한</p> <p>⑤ 고급스러운                    ⑥ 활동적인                    ⑦ 수수한                    ⑧ 화려한</p> <p>⑨ 귀여운                    ⑩ 지적인                    ⑪ 단정한                    ⑫ 여성스러운</p> <p>⑬ 품위 있는                    ⑭ 편안한                    ⑮ 맛있는                    ⑯ 현대적인</p> <p>⑰ 깔끔한                    ⑱ 점잖은                    ⑲ 자연스러운                    ⑳ 섹시한</p>						

## 참고문헌

### ■ 단행본

KT Economic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KT EMRI]. (2011). *Changes and preparation in the silver market led by active senior*. Seoul, Republic of Korea: KT.

### ■ 논문

김성남, 이경숙. (2007). 20~40대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패션비즈니스**, 11(4). pp. 29-41.

김옥진, 위은하. (2001). 중년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수트의 형태 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시각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5(3). pp. 525-526.

김유덕. (2004). 중, 노년층 여성의 의복 추구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6).

류현주, 홍금희. (2001). 성인여성의 자기이미지와 상표이미지 및 쇼핑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8). pp. 1367-1377.

민동원. (1999).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변미연. (2011). **신 중년층 여성을 위한 캐주얼웨어 디자인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기영, 옥선화. (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pp. 112

신기영, 옥선화. (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pp. 112

심정희, 연명흠. (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패션 제품의 이미지 선호도 : 35~59세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pp. 143-154.

윤원규. (2010). 실버 소비자와 뉴실버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점포서비스품질 비교 평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은영. (1998). 현대예술과 패션의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 95년 이후 Fashion Trend를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지**, 6(3). pp. 88-89.

이정은. (2020). **중년 여성의 맞춤형 스타일링을 위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안화. (2005). 실버 패션 디자인 연구-노년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6). pp. 581.
- Kim, J. S.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ctivities on active senior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ristianity humanism academi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im, J. E.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utdoor wear for active senior males: Focused on males aged 55~69*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im, J. Y. (2018).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social activities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ir satisfaction of life: Including the difference analysis among economic activities, social activities and leisure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Jeong, S. E. (2018). *Purchasing behaviors of cosmetics according to the lifestyles and subjective age of active sen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Song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 1-8.

#### ■ 기타

- 박진희. (2017). **2017년 주목해야 할 5가지 소비트렌드**. BC 카드 빅데이터센터 제휴 보고서. Retrieved March 4, 2018, [www.digieco.co.kr](http://www.digieco.co.kr)
- “중년들 백화점 신세대 매장 점령”. (2009. 5. 13.).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647?c1=225&c2=231>
- 늘어가는 대한민국. 10년 뒤 인구 절반이 '50대 이상'. (2021. 7. 6.). 서울경제, <https://v.daum.net/v/20210706155847903>

## ■ 참고사이트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 (2010). 3차원 인체형상.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https://sizekorea.kr>

한국스타일컨설턴트협회. <https://kstyleconsultant.modoo.at/?link=e0n465ji>

<https://www.mygoldenthimble.com/dress-acordingly-to-your-body-shape>

<https://www.mygoldenthimble.com/dress-acordingly-to-your-body-sh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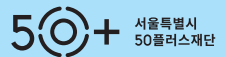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당사자연구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이희승
편집인	황윤주
책임자	권현진
연구자	강주현 · 전해운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22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한 '2022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1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50+부모의 고령화와 노후준비
- 2 50+세대 마을강사의 진로구성 경험 연구
- 3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연구
- 4 50+세대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자기자비 기반의 음악치유 프로그램 개발
- 5 COVID-19 이후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경험 연구
- 6 서울시 50+세대의 노후준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은퇴자 특성 연구: 누가 행복한 은퇴자인가?
- 7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 8 코로나 팬데믹 시대, 50+시니어 여행제약과 협상 과정 연구
- 9 50+세대 이웃관계 형성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방학서를 사례를 중심으로
- 10 50+세대는 누구인가? : 20년간의 주관적, 객관적 변화 궤적
- 11 서울시민 '삶의 질(quality of life)' 제고를 위한 서울형 행복지수 체계 관리 방안 연구